



대통령실 3실장 체제로…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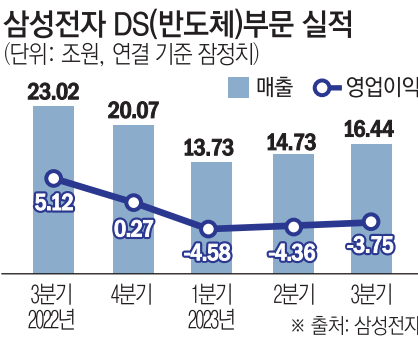


‘핑퐁외교 주역’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 타계

12

재고 줄고 마진 늘리고 ‘실적한파’ 녹이는 삼성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회복 조짐
CMOS 이미지센서 재고 급소진
D램 이어 최대 30% 가격 인상
“반도체 재고 수준 5월 피크아웃
공급자 우위… 실적 시너지 기대”



삼성전자가 최근 중국 고객사 등에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CMOS 이미지센서(CIS) 가격 인상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침체됐던 스마트폰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중국 주요 고객사들에 최대 25%, 개별 제품의 경우 최대 30%까지 이미지센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관련기사5면

CMOS 이미지센서는 사람 눈의 망막에 비유된다. 카메라 렌즈의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 이미지 포착을 돕는 비메모리 시스템반도체다.

지난 2년간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이미지센서 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이면서 CIS 부품 재고가 급속히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 인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침체기에 있던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2022년 12% 감소한 후 회복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 내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은 전년 대비 4% 성장해 11억 70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출하량이 늘면서 올해 글로벌 월간 판매량도 반등이 시작됐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 세계 스마트폰 월간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월간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21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스마트

폰 시장 회복과 더불어 AI서버용 고부가반도체 수요 증가등도 ‘삼성전자의 봄’을 기대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감산 효과 등의 영향으로 일부 고객사에 4분기 D램과 낸드 가격 인상안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제품(DDR4 8Gb)의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전월보다 3.33% 상승한 1.55달러를 기록했다. D램 가격은 지난 10월 15.38% 오르며 2021년 7월(7.89% 상승) 이후 2년 3개월 만에 반등한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플래시 범용제품(128Gb 16Gx8 MLC)의 11월 고정거래가격도 전월보다 5.41% 오른 평균 4.09달러를 기록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열린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감산과 수요 개선으로 반도체 재고 수준은 5월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을 지났고, 4분기엔 재고 수준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며 “탄력적인 생산 운영과 생산 회복에 맞물려 D램과 낸드 모두 재고가 감소 중이고 더욱 빠른 속도로 재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오랜 기간 반도체 업황을 괴롭혀왔던 과잉 재고는 연말을 지나면서 점차 해소되고, 대규모 감산 이후 ‘공급자 우위’로 돌아선 메모리 반도체는 과잉 재고 소진과 함께 가격의 상승 탄력이 강해지는 업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영록 기자 syr@



“세상을 비추는 따뜻한 하모니”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이 오프닝 공연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2012년 첫걸음을 내디딘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관련기사 2·3면 신태현 기자 holjjak@

OECD ‘올리고’·한은 ‘낮추고’… 엇갈린 내년 韓성장률

OECD, 美·中 성장률 밑바탕 예측
수출 기여도 ‘낙관’·민간소비 ‘비관’
한은보다 韓성장률 0.2%p 높게 제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두고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 엇갈렸다. 수출과 민간소비 항목 예측에서 차이가 났다.

한국은행은 30일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낮춘 2.1%로 전망했다. 하루 전날 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3%로 오히려 올렸다. 한은과 국제기구 간 전망 숫자뿐만 아니라 조정 방향이 갈린 것이다. 수출과 민간소비를 두고 서로 다르게 전망한 영향이 컸다.

▶관련기사 10면

OECD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를 0.9%p로 분석했다. 6월 전망치 0.5%p에서 0.4%p 올린

것이다. 이는 한은이 전망한 순수출 기여도 0.4%p보다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OECD가 한은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OECD는 내년 민간소비 기여도를 1.4%p로 예상했다. 한은 전망치인 1.9%p보다 0.5%p 낮은 수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역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OECD의) 성장률 예측이 한은보다 0.1%p 정도 높아서 수출이 더 나아질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면서 “내년도 한은이 2.1% 예측을 할 때는 그것이 굉장히 낙관적으로 예측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상방으로 더 될 수도 있고 하방으로 더 될 가능성도 물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틀리더라도 수출이 잘 돼서 성장률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며 “유가 등 전제 조건의 가정에 따라서(전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몇 퍼센트

(%)를 찍었다’ 이것보다는 전제 조건을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유지했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한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성장률이 전망치에 부합하려면 4분기 GDP 증가율이 0.7%를 기록해야 하는데 최근 산업동향이 부진하다는 우려를 차단한 것이다.

최창호 한은 조사국장은 “(10월 산업활동동향 부진은) 8·9월 중에 반도체 중심으로 산업생산이 크게 반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최근 3·4개월 흐름을 보면 소비 관련 지표는 모멘텀이 약화됐지만 수출이나 설비투자, 그와 관련된 제조업 생산 지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지표가 둔화됐지만, 당초 예상했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3개월 만에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쇼크’

통계청, 10월 산업활동 동향

10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들 지표가 ‘트리플 감소’를 보인 것은 올해 7월 이후 석 달 만이다. 8·9월 높은 증가율에 따른 기저효과,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 등의 주요 지표들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0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1(2020년=100)로 전월 대비 1.6% 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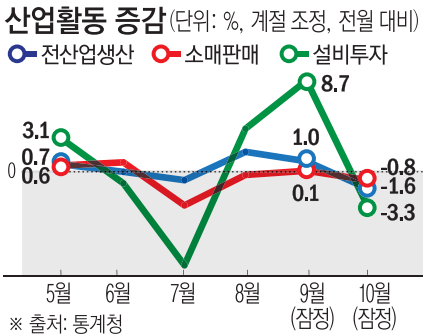
전산업 생산 42개월來 감소폭 최대
조업일수 줄어든 반도체 ‘-11.4%’

었다. 1.6% 감소는 2020년 4월(-1.8%) 이후 42개월 만에 최대다. 전산업 생산은 8월(+1.9%), 9월(+1.0%)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 10월 감소세로 전환됐다.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3.5% 줄어 전 생산 감소의 주요인이 됐다. 이 중 8월(13.5%)·9월(12.8%) 두 달 연속 10% 이상 증가했던 반도체 생산이 11.4% 줄

었다. 이는 2월(-15.5%)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생산이 3.5% 줄었다.

통계청은 “광공업 기준 올해 8월(+5.2%)·9월(+1.7%)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생산 감소의 경우 조업일수 감소 및 분기 초 생산 감소 경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반도체 생산의 추세적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월 반도체 생산지수(138.7)는 8월과 동일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3.3%), 운수·창고(-1.4%) 부진으로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공공행정도 1.4% 줄었다. 반면 건설업은 0.7%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

아섰다. 의료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컴퓨터 같은 내구재(1.0%) 판매는 늘었지만, 음식료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판매가 3.1% 줄었다. 8월(4.1%), 9월(8.7%)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던 설비 투자는 10월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어 3.3% 감소했다. 다만 건설기성(투자)은 전월보다 0.7% 늘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1로 0.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항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7로 0.3p 상승했다.

세종·서병문 기자 sbg1219@

경기 침체에도 사회적 책임 다한 기업들 ‘상생 성장’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김덕현(뒷줄 왼쪽 일곱 번째) 이투데이 대표이사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올해로 12회째... CSR 축제의 장 기재부 장관상에 '현대자동차그룹' 7개 부문 심사 25곳 수상의 영예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구성원,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다양한 CSR 활동 기록을 공모하는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가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도모한 '함께하는 기업'들의 CSR 활동 발자취를 공모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는 행사다. 2012년 첫걸음을 내디뎠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다.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영아 심사위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사업단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에는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맞물려 전통적인 사회는 물론이고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환경을 강조한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90여 곳이 응모하며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섰다. 심사결과 7개 부문에서 기업과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 25곳이 최종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획재정부 장관상인 상생경제 부문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그룹의 '힐스 오 휠스' 영상은 학대 피해 아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상담사의 인터뷰와 함께 이동 상담 과정의 어려움을 설명한 뒤, 모바일리티 기술을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일상 회복을 돕는 모습을 담고 있다.

SK스토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인 가치공유 부문 수상했다. SK스토아는 '재활용을 재활용하다' 영상을 통해 현재 재활용되고 있는 자원들을 다시 한번 더 업사이클링해 진정한 자원순환의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한 프로젝트를 앞

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인 사회적 책임 부문은 제주관광공사, 신한은행, 행복나눔재단이 수상했다. 제주관광공사는 환경문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플로깅(줍고+달리고)과 연계한 친환경 여행상품인 '세상에 이런 트립(E-RUN TRIP)', 해양쓰레기 팝업·전시 스토어인 '필터'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대표사회공헌사업으로 'ESG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은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의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문제제기 영상을 통해 이들의 삶이 더 이상 막막하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에서 함께 힘을 모아보자는 손길을 내밀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에는 금융산업공약재단·CJ나눔재단,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받았다. 금융산업공약재단과 CJ나눔재단은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사업을 통해 다문화·아동 청소년을 돕고 있다.

환경부 장관상인 환경 부문은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이 받았다. 현대백화점 사회복지재단은 지구가 다시 본연의 아름다움을 되찾아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활동을 소개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노사 협력 부문에는 하나금융지주, 고려대학교의료원, 포스코1%나눔재단·따뜻한동행·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상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8년부터 5년째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고려대학교의료원은 체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포스코1%나눔재단 등은 따뜻한 동행이란 주제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를 소개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인 동반 성장 부문에는 CJ ENM, 서울신용보증재단, SK컴퍼니가 받았다. CJ ENM의 CJ온스타일은 대기업 유통사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에스고(YESGO)'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재도전 소상공인의 사업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SK컴퍼니는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를 통해 매장의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 중이다.

송영록 기자 syr@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수상작

발급부처	부문	기업명	영상제목
기획재정부장관상	상생협력 부문	현대자동차그룹	바퀴에 희망을 싣고 - 힐스 온 휠스(Heals on Wheel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가치공유 부문	SK스토아	재활용을 재활용하다 <재활용의 무한도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사회적 책임 부문	제주관광공사	청정 제주를 위한 제주관광공사의 '친환경 동행'
		(주)신한은행	ESG 상생 프로젝트 자살유족자녀 지원편
		재단법인 행복나눔재단	영게어려와 돌봄의 위기
		금융산업공약재단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로 함께
		CJ나눔재단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보건복지부장관상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	(주)프로젝트퀘스천	make us green in jeju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행복한 안내견 단풍이 스토리
환경부장관상	환경 부문	(주)현대지에프홀딩스	다시 그리는 지구 - 리그린
		(주)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고려대학교의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ESG 실천 시리즈
고용노동부장관상	노사협력 부문	재단법인 포스코1%나눔재단	따뜻한동행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포스코1%나눔재단 디지털 코딩 아카데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로디지털훈련센터	
동반성장위원회장상	동반성장 부문	(주)씨제이이엔엠	함께하는 미래, YESGO for the Partner
		서울신용보증재단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_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하는 사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에스씨케이컴퍼니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금융위원장상		KB금융지주	KB금융,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미래
서울특별시장상		협동조합 무의	모두의 1층
		사단법인 두루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		(주)LS	"Dream Supporter, LS"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주)	동행을 꿈꾸는 메르세데스-벤츠의 다섯 가지 약속
이투데이대표이사상		Greenism	그리니즘 - 국내외 청년들과 함께,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심사평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심사”

김영아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기획의 창의성과 영향력 있는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대중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지속가능성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인 문제 개선 및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했는지를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김영아(사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



역 복지사업 단장은 '2023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올해 행사에 제출된 영상에 대한 평가 기준을 밝혔다.

김 단장은 “올해 12회를 맞이한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는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구성원 그리고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012년부

터 꾸준히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올해엔 총 90여 개 작품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세상은 지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혁명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사회문제는 물론 환경적 요소인 탄소발자국,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올해 출품작 역시 ESG가 대세였다”고 평했다.

김해욱 기자 haewookk@

환영사 및 축사

“사회공헌은 물론 지배구조 관심을”

박병원 경총 명예회장

박병원(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이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뿐 아니라 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명예회장은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 환영사에서 “CSR을 쪼개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다. E와 S에서는 집중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G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 곳곳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미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원활한 노사관계를 잘 이끄는 게 중요하다. 내년에도 이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CSR, 이제 선택 아닌 필수”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이승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2023 CSR 필름 어워드 페스티벌' 축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추가적인 노력과 비용이 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지도와 비즈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정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이 인정을 받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K-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코로나 이후 더 힘겨워진 취약계층… 안전망 회복 절실”

행사 이모저모

학생·사회단체·기업인까지
영하7도 한파 뚫고 수상작 감상
“다른 기업 CSR 들여다본 기회”

시각장애 코웨이 합창단 열창
각계각층 뜨거운 나눔의 축제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3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씨에도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2023 CSR 필름페스티벌 어워드’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행사장은 학생부터 일반, 전문 사회단체, 기업 등 각계각층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인 축제의 장이었다.

행사는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의 공연 무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합창단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오 해피데이’ 노래는 행사장을 온기로 가득 채웠다. 20명이 함께 호흡을 맞춘 합창단 목소리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지난해 12월 창단된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중증 시각장애인 20명으로 구성됐다. 문화예술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장애 인식 개선이 활동 목적이다. 구로구청, 금천구청, 서울시, 국회 등 다양한 지역사회 행사에서 공연하고 대학교 등과 교류하며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SR 행사로 발돋움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덕현 이투데이 대표이사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자리를 빛냈다.

김덕현 대표는 개회사에서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 위기와 고금리 등으로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보호는 정부는 물론 기업과 사회단체도 함께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사회 약자를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때 기업도 지속가능 경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박병원 명예회장이 환영사를, 이승렬 정책실장이 축사를 했다.

박 명예회장은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이익과 동시에 추구하면서, 소비자에게 더 사랑받는 문화가 만들어져 더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백두현 행복나눔재단 책임매니저는 “행복나눔재단도 지속해서 CSR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수상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CSR 활동을 할 때 다른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행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돼 좋았다”며 “특히 다른 기업에서 진행하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행사들을 볼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박병원(왼쪽 사진부터)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30일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환영사 및 축사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수상기업 CSR 사례

마음 상처 입은 학대아동에 움직이는 쉼터 ‘아이케어카’

현대차그룹

아동보호기관 142대 차량 지원
심리상담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현대차그룹은 2015년부터 기술 CSR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직면한 문제, 우리 기술이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동준<사진>현대차그룹 디지털저널 PR팀 책임매니저는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1월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를 돕는 이동형 상담 모빌리티 ‘아이케어카(iCAREcar)’를 공개했다. 2015년부터 진행된 현대차 기술 캠페인의 여섯 번째 프로젝트다. 지금까지 9년간 66개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총 142대의 차량을 지원했다. 지원 금액은 35억 원에 달한다.

아이케어카는 스타리아에 디지털 테라피 방식을 도입한 아동 학대 현장 출동 차량이다. 아이케어카의 넓은 실내에 상



담 전용 공간이 된다. 피해 아동과 상담사가 마주 앉을 수 있는 회전 시트, 아동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재미 요소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화면, 스트레스 측정을 위한 뇌파 측정용 이어셋 등은 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대차그룹은 아이케어카의 기술들을 캠페인 영상 ‘힐스 온 힐스’에 담아 공개했다. 영상은 아이케어카 개발 과정을 그리고, 실제 아동과의 상담 과정도 자세히 담았다.

박 책임매니저는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인간을 위한 진보’라는 슬로건 아래 사람을 위한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의료기관 ESG ‘첫 테이프’ 국내외 의료 사각지대 해소

고려대 의료원

“사회적 약자 위해 탄생한 병원
다채널 의료 서비스 구축 노력”

“고려대학교의료원의 탄생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시대의 소명과 맞닿아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채널을 비롯해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겠다.”

박준일<사진>고려대의료원 커뮤니케이션팀 과장은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 고려대 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고려대의료원은 1928년 우리나라 최초 여자 의학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로 시작해 시대의 변곡점마다 의료 소외계층을 치유하고 박애를 실천해 왔다.

고려대 의과대학은 세계 100대 의대에 올랐고, 의료원 산하 안암·구로·안산 3개 병원은 신뢰받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성장했다.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ESG(환경·사



회·지배구조) 지표를 정립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요 지속 가능 경영 활동과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 등의 환경 지표, 노동·인권·환자 권리 등을 담은 사회적 지표를 비롯해 윤리경영, 재무정보, 이해관계자 중대성 평가 등 주요 지표를 담고 있다.

2021년 5월 출범한 사회공헌사업본부(9월 사회공헌사업실로 명칭 변경) 산하 ESG 위원회를 설치해 ESG 전략을 마련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과 사회적 활동인 Planet 부문과 사람과 거버넌스 활동인 People 부문 등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을 시행 중이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대상 의료지원 △아프간 특별 기여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KB금융그룹, 은행권 수익 사회환원에 앞장설 것”

수상자 인터뷰

조용범 KB국민은행 부장

“앞으로 KB금융은 KB국민은행을 포함해 은행권이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 금융을 진행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조용범<사진>KB국민은행 ESG 기획부장은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 부장은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있



는데 대출 금리도 크게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는 ‘KB드림웨이브2030’ 사업을 꼽았다. 조 부장은 “취약 계층 및 어려운 아이들의 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초·중·고·대학생까지 학년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다”며 “매년 금액을 확대하고 대상자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이번 행사에서 ‘K-Bee 프로젝트’를 담은 영상으로 금융위원장상을 받았다. K-Bee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개체 수가 급감하

고 있는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도심 속 양봉장을 만드는 사업이다.

조 부장은 “꿀벌들이 기후 변화로 줄고 있다. 도시 양봉을 통해 꿀벌 생태계를 복원하고, 고객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K-Bee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며 “작년에 여의도를 시작으로 올해는 서울숲과 서대문구청 등 3곳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꿀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넓히기 위해 내년에도 4~5곳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신임 정책실장 이관섭… 대통령실 ‘3실장·5수석’ 체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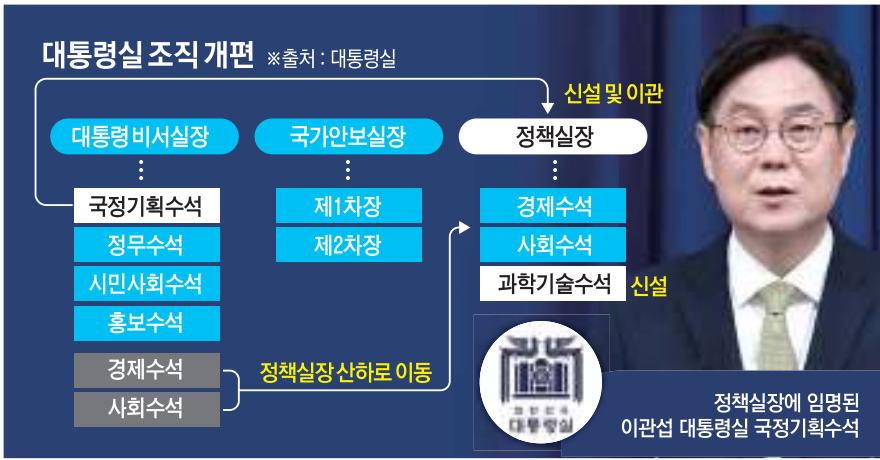
尹, 수석비서관 전원교체

“경제 정책추진 밀도 있게 점검”
‘정책실·과학기술수석실’ 신설
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 기용
새 참모진, 4일부터 임기 시작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하는 등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수석에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는 박준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는 장상운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실장실은 경제·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할 과학기술수석실 또한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된다. 국정기



획수석 소관인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두게 된다. 신설하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인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럼에도 가급적 연내 또는 내년 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전환하고, 수석 5명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현 정부 출범 1년 6개월여 만에 ‘2기 용산 참모진’이 출

범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무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해왔다”며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부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



사진 왼쪽부터 박준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운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가나다 순).

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황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 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홍보수석에 대해서는 “다년간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국정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박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재정·예산 전문가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안정을 도모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할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은 인선된 신임 실장과 수석비서관의 임기는 4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2만8000% 이자’ 갈취… 조폭영화 뺨치는 불법사금융

국세청, 역대 최대 세무조사
전국 사금융업 108명 동시조사
“과세기간 최장 10년까지 확대”

학생과 주부 등을 대상으로 최고 2만 8000%의 초고금리를 매겨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 일당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변제 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국세청은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폭

력을 동원한 추심 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부 이익을 일가족의 사치 생활에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재산추적 조사에 들어갔다.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다.

국세청에 따르면 A 씨는 취업준비생이나 주부를 상대로 악질적인 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만 원 빌려주고 7일 후 128만 원을, 15만 원 빌려주고 12일 후 61만 원을 각각 상환하게 했다. A 씨는 20~30대인 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뒤 비대면·점조직 형태의 불법 사채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등 차명계좌로 이자를 받았고 특정 장소에 현금박스를 두면 중간책이 수거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입 내역을 철저히 숨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변제일을 지키지 못한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불법 사금융 사례엔 단순한 탈세를 넘어 살인적인 초고금리, 대포폰·차량, 폭력·협박, 사칭 등 불법 행위가 넘쳐났다.

B 씨는 불법 초고금리는 물론 인신매매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7일 만기로 15만 원을 빌려준 뒤 한 달 만에 받아야 할 돈을 5000만 원으로 불렀으며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 사진을 수배자 전단으로 합성해 협박했다.

특히 채무자의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며 빚 상환을 독촉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는 인신매매 위협을 가했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도를 넘는 행태로 채무자가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금융상품을 저축은행 상품인 척 소개하고 중개료를 착취한 경우도 달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탈세액에 상응하는 조세 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확정 전 보전압류’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과세기간은 최장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2024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안내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스스로 상생 해법을 마련하고, 중소기업(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위험성평가 등 상생협력활동을 대기업(모기업)과 정부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지원 비용 지원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에서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 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매칭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교육, 캠페인, 보호구 등 지원

▶ 정부지원 예산규모

90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 접수기간

2023. 12. 4.(월) ~ 12. 21.(목)

▶ 신청대상

사내·외 협력업체(지역 중소기업 포함)와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100인 이상 모기업(건설업 제외)

▶ 지원내용

기술지원 상생협력활동 수행계획 검토 및 이행 모니터링, 상생협력활동 평가 수행

매칭지원 협력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 상생협력활동 비용을 정부와 모기업이 매칭하여 지원

※ 매칭분담비율: ▲사외·지역중소기업 정부70: 모기업30 ▲사내 협력업체 정부50: 모기업50

▶ 지원한도

컨설팅과제 협력업체 1개소당 최대 2,000만원(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지원

활동과제 컨소시엄당 최대 2억원 지원

▶ 지원혜택

우수기업 선정시

① 고용노동부 장관 우수사업장 선정서 ② 산업안전보건 자율실천기간 부여(감독대상 미포함, 특별감독은 대상 포함)

③ 정부 동반성장 지수 평가 가점 ④ 공단 재정지원사업(융자 보조금) 우대 등

사업참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E-mail,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모기업 소재지 관할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제지원부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주관기관	접수 권역 및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 강원, 서울남부, 서울동부, 강원동부 TEL: 02-6711-2965	인천광역본부	인천, 경기북부, 경기중부, 고양파주 TEL: 032-510-0608
부산광역본부	부산, 경남, 울산, 경남동부 TEL: 051-520-0531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 충남, 충북, 충북북부 TEL: 042-620-5615
광주광역본부	광주, 전북, 전북서부, 전남, 전남동부, 제주 TEL: 062-949-8745	경기지역본부	경기, 경기서부, 경기동부 TEL: 031-259-7172
대구광역본부	대구, 대구서부, 경북, 경북동부 TEL: 053-609-0524		

※ 담당자, E-mail은 상기 연락처로 연락하여 확인바랍니다.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 Tel. 052-703-0631, 0633

※ 신청서 양식과 상세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www.kosha.or.kr → 사업소개 → 산업안전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고용노동부

산업정책팀

안전보건공단

〈DS부문장 사장·MX사업부장 사장〉

‘삼성전자의 봄’ 짊어진 경계현·노태문… 어깨 천근만근

반도체·모바일 진두지휘

삼성전자가 최근 사장단 및 임원 정기 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반도체와 모바일 사업의 향후 계획에도 관심이 쏠린다.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경계현 DS부문장 사장과 모바일 사업을 이끄는 노태문 MX사업부장 사장은 이번 인사에서 모두 유임됐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실적 하락 등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경 사장과 노 사장은 최근 2024 정기 인사에서 유임이 결정되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각각 DS부문과 DX부문을 이끌게 됐다.

그간 삼성전자는 인사과정에서 성과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상필벌의 원칙을 고수했는데, 올해 DS부문 실적이 시장 불황과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에 경 사장은 향후 반도체 사업에서 무조건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영업이익 개선이 시급하다.

지난해 삼성전자 DS부문 영업이익은 23조8158억 원으로, 2021년 29조1920억 원 대비 약 18%(5조3762억 원) 줄었다. 올해는 적자 전환된 이래 3

반도체 불황에 DS부문 실적 폭

AI메모리 개발 경쟁사에 밀리고 애플 아이폰15 흥행 ‘침침산중’

갤24로 젊은 소비층 흡수 급선무

분기 누적 손실이 12조6976억 원에 달한다. 경 사장이 지휘봉을 잡았던 2021년 12월 이래 성적표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셈이다.

실적 개선 속도도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뒤진다. SK하이닉스는 이미 3분기에 D램 부문 실적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삼성전자는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반도체 재고 물량 해결도 주요 과제다. 삼성전자 3분기 말 기준 DS부문 재고 자산은 33조73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전년도 전체 재고자산 29조576억 원을 크게 웃돈다. 2021년 말 (16조4551억 원)과 비교하면 배로 늘었다.

반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재고 자산은 지난해 15조6647억 원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4조9479억 원으로 약 4.6% 감소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사보다 반도체 시장 호

름을 파악하는 데도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쟁사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반도체 생산량을 줄여왔는데,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부터 감산에 동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감산 시기를 늦춰 더 높은 재고 부담을 안게 됐다”며 “상당 기간 지금과 같은 감산 기조를 이어가야 경쟁사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신제품 출시 지연과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 해결도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대두로 최근 주목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도 경쟁사에 밀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5세대 HBM인 HBM3e를 경쟁사인 SK하이닉스보다 늦게 개발했다. 이에 엔비디아 등 고객사 샘플 공급 시기도 SK하이닉스보

경계현 DS부문장 사장▶

다 2개월 가량 뒤처졌다. 모바일용 D램인 저전력더블데이터레이트(LPDDR) 역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신제품 LPDDR5T를 먼저 개발하고, 비보 등 고객사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노 사장에게는 폴더블폰 대중화와 더불어 내년 1월 공개하는 갤럭시S24 시리즈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특히 갤럭시S24는 업계 최초로 AI를

기기 자체에 탑재하는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할 예정이라 업계의 관심이 많다.

다만 상황은 녹록트 않다. 대항마인 애플의 최신작 아이폰15의 흥행이 거세다. 미국 주력 소비층인 젊은 세대로 애플 아이폰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국내도 출시 후 처음 한 달간 판매량이 전작 대비 41.9% 늘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S24를 차별화해 젊은 소비층을 흡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출시될 갤럭시 AI 폰은 기존 스마트폰 수준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기기라는 평가가 있다”면서도 “애플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도 세계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신제품으로 갤럭시만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유진의 기자 jinny0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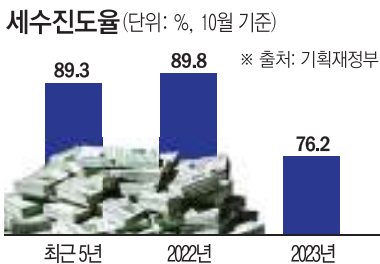
◀노태문 MX사업부장 사장



국세수입 올해 첫 ‘플러스’ 누계는 50조4000억 펑크

기재부 ‘국세수입 현황’

법인세 24조↓·소득세 15조↓
4분기 경기 개선 가시화 영향



10월 국세수입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00억 원이 더 들어와서 마이너스를 면했다.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여전히 50조4000억 원 부족한 상태다. 10월 월별 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애초 재추계한 59조1000억 원보다는 세수가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0월 당월 국세수입은 38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4분기 들어 경기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세수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4000억 원이 감소하고 수입액 감소 등으로 관세가 1000억 원 줄었지만, 부가가치세가 소비 증가 등으로 8000억 원, 법인세가 1000억 원 각각 늘었다. 다만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여전히 50조4000억 원이나 펑크가 났다. 10월까지 305조2000억 원이 걸렸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효과(10조

2000억 원)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감소액은 40조2000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인 진도율도 76.2%로 지난해 89.8%는 물론 최근 5년 진도율 89.3%에 크게 못 미쳤다. 누계로 보면 법인세가 2022년 기업 영업이익 부진 및 올해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23조7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소득세도 부동산 거래 위축 및 기저효과(종합소득세 -2조4000억 원) 등에 따라 14조6000억 원이 감소했다.

부가세도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등에 따라 5조4000억 원, 관세도 수입 감소에 등에 따라 3조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올해 9월 세수재추계를 통해 59조1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9월까지 50조9000억 원 세수펑크가 났기 때문에 10~12월 3조5000억 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10월 월별 국세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애초 정부 전망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기술가치투자 이제 퍼트려(PTR)! SK증권 PTR랩

PTR : 주가기술비율(Price Technology Ratio)로 상장사가 보유한 특허가치를 주가와 비교하는 지표임.
PEROIL PBR처럼 기술가치대비 주가가 고평가 또는 저평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

고객행복센터 1599-8245

- ※ 투자자는 랩 계약에 대하여 SK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이 랩 계약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가입하기 전에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철저히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이 랩 계약의 선취수수료는 없으며, 운용보수 연 1.5%(분기별 0.375% 후취), 성과보수는 고객과 별도 협의로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5248호
13029.11.19 ~ 2022.11.18
SK증권 본회(4121)인사팀 7823-901호
2022.11.19 ~ 2026.11.18

공기업 이전에 ‘일자리·인프라 풀충전’… 지역활성화 기폭제

집값 움직이는 ‘먹고새니즘’ ③ 지방혁신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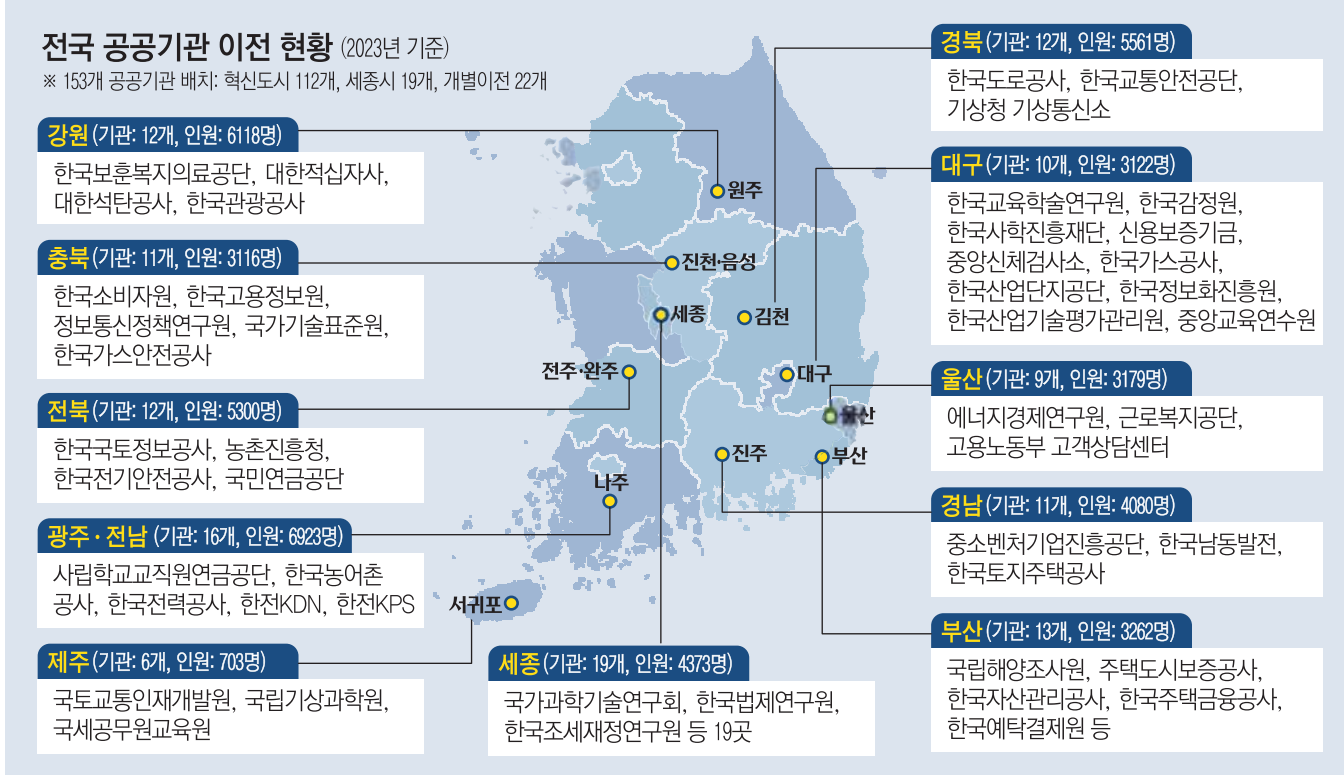
일자리가 지방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보다 더 강하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딘 인프라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대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부족한 지방에 수백~수천 명이 근무하는 일자리가 조성되면 그만큼 인구 유입과 신규 인프라 조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면 지방 내 대규모 일자리는 부동산 시장을 한방에 뒤집을 ‘게임체인저’인 셈이다.

30일 본지가 전국 지방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의 집값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 조성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1년을 때놓고 보면 지방의 가파른 집값 하락 기에도 혁신도시는 선방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내 일자리의 파급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도시란 2007년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거점지역에 조성된 미래형 도시를 뜻한다.

계획인구 2~5만 명을 목표로 개발하며 단순히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과 연구소, 산업체, 지자체가 협력하는 거점 도시로 개발된다. 동시에 녹지와 교육·문화 기능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조성된다.

지방 혁신도시에는 총 112개 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혁신도시로는 충북 음성군(한국소비자원·한국교육



개발원 등)과 강원 원주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관광공사 등), 전남 나주시(한국전력), 경남 진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 김천시(한국도로공사) 등이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조성된 지방 혁신도시나 국가 중요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역은 기존 구도심보다 훨씬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 혁신도시 조성지역 내 단지는 해당 도시 내 대장 단지도 등극한 상황이다. 일자리 주변 부동산 시장 강세는 지방에서 오히려 더 도드라져 ‘지방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공식을 깨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맹동면 ‘충북혁신도시 영무예다음3차’ (2017년 준공) 전용면적

소도시 지속적 인구감소 골머리 혁신도시 조성 집값 게임체인저 부동산 하락세에도 굳건한 몸값

84㎡형은 지난 3일 3억7000만 원에 실거래됐다.

이 단지 같은 평형은 2021년 2억4000만 원 안팎에 거래됐지만, 지난해 상반기까지 4억 원 이상 몸값이 수직으로 상승했다. 반면 음성군 대소면 ‘대소웰메이드타운’ (2018년 준공) 전용 84㎡형은 지난달 최고 2억2500만 원에 거래됐다.

두 단지는 준공 시기도 비슷하고, 같은 평형이지만 소비자원과 정보통신산업집

흥원 등이 가까운 혁신도시 주변 단지가 1억5000만 원가량 더 비싼 것이다.

또 LH를 중심으로 조성된 진주 혁신도시 인근 단지도 다른 진주 내 단지보다 1억 원가량 비싼 몸값을 자랑한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진주혁신도시 대방노블랜드더캐슬’ 전용 84㎡형은 지난달 7일 기준 최고 7억2300만 원에 팔렸다. 반면 초전동 ‘힐스테이트 초전’ 같은 평형은 지난 14일 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두 단지 몸값 차이는 2억73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최근 지방에선 혁신도시뿐 아니라 우주·항공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인 전남 고흥과 경남 사천 역시 지역 내 다른 곳보다 안정적인 집값 흐름을 보인다. 이날 KB부동산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

충북혁신도시 조성에 수직 상승 주변단지比 1.5억가량 더 비싸 우주산업 특화 고흥, 개발기대↑

향’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집값 변동률은 전남 고흥이 0.84% 상승으로 전남 평균인 -3.67%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사천시 역시 -0.96%로 경남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 -5.4%보다 하락 폭이 작았다.

전남 고흥군은 나로우주센터가 들어서면서 우주 산업 관련 특화지역으로 발돋움 중이다. 3월부터는 172만㎡ 규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도 지정되는 등 개발 기대감이 크다. 경남 사천시 역시 한국판 미국항공우주국(NASA)인 우주항공청 설치 추진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본사가 들어서 있다.

특운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혁신도시라고 하더라도 강원과 대전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은 통근 비율이 높아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그 외 지방은 대규모 일자리가 공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노후 도시일수록 신축단지 선호도가 더 높은 만큼 일자리가 몰린 지방 내 지역 부동산 시장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 내 신규 조성 지역은 인구 급증에 따른 신규 창출 효과는 적고, 구도심의 인구 이동 효과가 더 큰 만큼 구도심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韓, 디지털 경쟁력 평가 세계 6위… 역대 최고

스위스 IMD 평가 결과

총 64개국 중 ‘미래준비도 1위’
기술분야 12위·지식분야 10위
美, 지난해 2위에서 올해 1위로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3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역대 가장 높은 순위

에 올랐다. 30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64개국 중 6위로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앞서 한국은 IMD 집계가 시작된 2017년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에는 14위, 2019년과 2020년에는 10위와 8위, 2021년에는 12위를 기록했다.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IMD가 전 세계 64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미래준비도 △기술 △지식 등 3개 분야와 9개 부문, 54개 세부 지표를 측정해 산출한 지표다.

부문별로는 ‘미래 준비도’에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세계화에 대한 태도’에서 7위, ‘빅데이터 및 분석기술 활용’에서 31위를 기록했다.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순위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 대상 64개국 중



한국 순위 변화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민간 동반자 관계’에서는 40위에 오르며 지난해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기술과 지식 분야에서는 각각 12위, 10위를 기록했다. 기술에서 ‘지적 재산권’은 28위, ‘국가신용등급’은 16위, ‘통신 기술’은 11위에 올랐다. 지식에서는 ‘인재의 국제 경험’이 51위, ‘직원 교육’은 23위, ‘교육 및 연구 개발 분야 로봇’에서 4위를 기록했다.

전체 64개국 중 1위는 지난해 2위였던 미국이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네덜란드와 싱가포르가 이름을 올렸다. 스위스는 전년과 동일하게 5위를 기록했다. 주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한국 다음으로 9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두 계단 미끄러진 19위를, 일본은 32위를 각각 기록했다.

IMD는 앞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성·현대차와 같은 ‘국가 챔피언’ 기업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였다”면서 “한국 반도체 분야의 차별화·전문화가 경쟁 우위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IMD가 9월 발표한 ‘2023 세계 인재 순위’에서 한국은 지난해보다 네 계단 뛴 34위를 기록했다. 종합 점수는 100점 만점에 61.96점을 받았다.

세계 인재 순위는 IMD가 전 세계 64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자국 인재에 대한 투자 적극성 △국내외 인재를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도 △자국 인재 능력 등 3가지를 고려해 산출한 지표다. 순위는 교육 관련 통계와 글로벌 기업 임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전아현 기자 cahyun@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뇌물 일부유죄… 징역 5년”

‘이재명 측근’ 실형선고·법정구속 유동규 무죄… 남육 징역 8개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김 전 부원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2013년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금 조성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하이패스 및 진출입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도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자금을 마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육 변호사가 2021년 5월 30일 김 전 부원장이 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 “허위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구체적 묘사”라고 판단했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당시 지지세력을 확보하는 등 정치 활동 전개에 필요한 대선 자금 명목으로 유동규·남육·정민용 등에게 총 8억 4700만 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유동규에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박꽃 기자 pgot@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energy**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연료전지 #태양광 #분산발전 #전기차 충전 #미래를 생각하는 에너지 솔루션 #Mobility #Platform

작품명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

에너지 슈퍼 스테이션으로
신재생 에너지 직접 생산부터 전기차, 수소차 충전까지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Hi SK에너지의 **그린픽처**

여진 공포·긴급재난문자… 새벽 잠 깨운 ‘경주 지진’

7년만에 또… 4.0 규모

올해 내륙 발생 최대 규모
“韓 지진 안전지대 옛말” 지적도
큰 피해 없어… 비상 태세 유지

30일 새벽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한 규모로, 대구·부산 등 인접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고 유감신고도 잇따랐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55분 24초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추정된다. 이는 해안과 내륙을 포함,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규모 2.0 이상의 99회 지진 중 2번째 규모이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강력했다.

지진 발생 이후 총 6차례의 여진도 이어졌다. 여진 중 최대는 같은 날 오전 5시께



발생한 규모 1.5 지진이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남북 또는 동서 방향의 주향이 동 단층 운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향이동단층은 수평 방향으로 끊어진 단층을 말한다.

특히 이날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9월 국내 최대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경주에서 동쪽으로 21km 떨어진 곳이어서 불안이 증폭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지진은 올해 한반도 내륙 발생 지역지진 규모 1위에 해당한다”며 “계기관측이 시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한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교량에서 공사업체 관계자가 교량 흔들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작된 1978년 이후로는 규모 순위 8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상청은 2016년 발생했던 지진과 같은 단층에서 발생한 것인지는 심층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현재까지 규모 2.0 이상 지진이 99번 발생했다. 그간 한반도는 지질학적 구조상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됐으나, 최근 지진 발생 횟

수가 정도에 비춰볼 때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긴급재난문자’는 지진 발생 후 8초 만에 발송됐다. 내륙에서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발생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구·부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 시민들은 새벽에 발생한 지

진으로 잠을 못 이뤘다. 소방 등에도 여러 신고가 들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진동을 느꼈다는 유감신고는 총 132건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45건, 대구 15건, 부산 7건, 대전 2건, 충남 1건, 경기 1건, 창원 1건이 뒤를 이었다.

이날 경북의 계기진도(흔들림의 정도)는 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정도의 위력이다. 울산에서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인 4, 부산은 실내에 있는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인 3을 기록했다.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추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빈 기자 chaebi@

부산 ‘엑스포 눈물’ 산은법 개정으로 닦아주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독이 됐어요. 정부·여당에선 오히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명분이 됐습니다.”(산업은행 A 직원)

부산의 엑스포 유치 실패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으로 불뚝이 튀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PK(부산·경남) 지역 민심을 붙잡기 위해 여당과 부산시가 표류 중인 산은의 부산 이전 강행을 천명하면서다. 산은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됐으나 다시 이슈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산지역 의원들과 부산

지역현안 회의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고 있을 부산 시민을 위로하고 부산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부산 발전 3대 과제(가덕신공항 조기완공·북항재개발·산은부산이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산은 본점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해 1월인데, 2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며 “반

김기현 대표 부산 지역 현안 회의 “발전 3대 과제 차질없이 추진을” “총선 전 엑스포 화제전환” 비판도

드시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붙어민주당 설득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산은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의결이 불발됐다. 같은 달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안전에도 오르지 못하면서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기회가 생겼다. 정무위는 5일과 7일 법안소위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막바지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이런 여당의 움직임에 산은 노조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무마에 산은을 이용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30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부산 시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보유 자산이 300조 원인 산은이 어떻게 300조 원의 경제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부산엑스포 유치 효과가 60조 원인데 어떻게 산은 부산 이전 효과가 300조 원인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PK 지역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을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심도 깊은 고민 없이 산은 부산 이전을 계속 강행한다면, 이는 분명히 대한민국 경제와 국가 금융산업을 크게 후퇴시킬 뼈아픈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THE HYUNDAI

프레드 사무엘의 삶의 서사시가 담긴 경이로운 여정

아시아 최초, 하이 주얼리 크리에이터 메종 프레드의 특별 전시.
프레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드는 주얼리와 오브제,
미공개 아카이브를 전시한 아홉 개의 룸으로 경이로운 여정을 떠나보세요.

JEWELLER CREATOR SINCE 1936
하이 주얼리 크리에이터 프레드 전시

2023년 11월 11일 - 12월 25일
ALT.1 더현대 서울 6층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연세점 | 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캐슬 | 현대그린푸드 | 한섬 | 더한성닷컴 | 현대리버트 | 현대&C | 지누스 | 현대렌탈케어 | 현대드림투어 | 현대아인이책미술관

〈인요한〉

〈김기현〉

인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김 “적절치 않다” 단칼에 거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자신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당에 제안했다. 대신 내년 총선에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30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11차 회의 직후 결과브리핑에서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인 위원장은 자신이 속한 신촌세브란스 병원 소재지인 ‘서울 서대문구갑’ 총선 영입설에 오르내린 바 있다.

그는앞으로 공관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혁신위가 내놓은 안건들이 당에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다음 주 월요일(12월 4일)까지 당의

인요한 “총선 선출직 출마 포기 공관위원장 맡아 혁신안 관철” 김기현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

‘불출마·힘지 출마’ 혁신안 의결 지도부 ‘용퇴론’ 수용할지 주목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지도부가 혁신위의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고 공천관리 위원회에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앞서 혁신위는 약한 달에 걸쳐 총 5개의 혁신안을 의결했지만, 당은 1호 혁신안인 ‘대사면’ (일괄 징계 취소)만 공식 의결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안건들은 추후 구성될 공천관리 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며 의결을 미뤘다. 인 위원장이 ‘권고사항’ 차원에서 제안한 ‘중진·지도부·친운(친윤석열)의 불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출마 혹은 힘지출마’는 혁신위의 공식 의결을 거치지 않았단 이유로 “공개적으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인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의 제안을 공관위로 넘겼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선 국민 납득이 어렵다”고 불만을 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진 불출마’ 안건도 6호 혁신안으로 공식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 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공식 보고될 예정이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힘지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며 “6호 혁신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중진 불출마’ 등의 공식 의결이 권고사항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 당시 권고안은 최고위에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정식으로) 의결을 했

기때문에 (지도부에) 6호 혁신안으로 보고가 될 것으로 안다”며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도부 보고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목요일에 되는 게 일반적 순서”라고 덧붙였다.

인 위원장의 공천위원장 요구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적절치 않다”며 즉각 거절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혁신위원회가 참 수고를 많이 했다. 당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면서 더 이상의 답변을 피했다.

김은재 기자 silverash@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김기현(맨앞줄 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두 번째)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마치고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의원들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巨野, 오늘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정국이 극도로 열어붙었다. 민주당의 탄핵안 강행 수순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마치고 국회 내 철야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처리 시한(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명호 국회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여당 반발 불구 강행 처리 수순 국민의힘, 국회 철야농성 돌입

표결해야 한다. 기한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의 직무는 현재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장 6개월 정지된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언론 장악을 위해 위

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받는 이 검사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국회 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탄핵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법정시한이 임박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비상등이 커졌다.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된 2014년 이후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것은 2014년과 2020년 뿐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400여건을 넘어서는 상태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결혼 증여세 3억 공제·가업승계 증여 완화’ 세법개정안, 조세소위 통과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구간을 완화하는 법안과 1억 원의 혼인 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30일 국회 기재위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말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 원 이하 상향, 연부연납 20년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에서 지난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된 데다 ‘부자감세’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합의한 결과다.

또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비과세 증여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신혼 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혼인과 출산 시 나눠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선택지도 포함됐다.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현행 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첫째 1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30만 원 공제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2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높였고, 경제특구 소득·법인세 감면도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하는 내용이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월세 임대료는 과세 대상인데 전세 임대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다.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내용인 국가재정법은 전체회의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는 세법개정안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영인 기자 oin@

이종석 현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수장 공백 21일 만에 해소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이 후보자 임명

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위해 결국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신임 현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

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였다.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난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공공기관 데이터·특허 門 활짝... “창업에 활용하세요”

기재부, 공공기관 운영위 개최

앞으로 공공기관데이터와특허를활용한 민간의 창업 및 사업화가 더 신속해지고, 쉬워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13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특허 무료나눔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방안은 데이터 개방 확대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허 무료나눔 활성화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요에 기반한 개방을 관리를 강화한다. 데이터 활용 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창업을 활발하게 시도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와 여행자 이동 데이터 등을 공공기관 간 공유해 기업·개인에 대해 보다 고도화된 데이터도 제공할 계획이다.

활용자 창업자금 지원요건 완화

특허 기술이전 계약 과정 간소화

혁신 中企 발굴 및 생태계 조성

공공기관의 특허 무료나눔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특허 기술이전 신청 후 계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간소화해 신속히 진행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해 신청 기업의 기술료 감면 승인 기간을 단축하거나, 신청 기업에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해 기술이전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 소액나눔’ 제도도 시범 도입한다. 이럴 경우 특허이전 신청 후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은 보다 신속히 특허이전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기업으로서는 이전 받은 특허를 후속 연구개발 등에 활용해 사업화와 매출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특허 무료나눔이 창업 분위기 확산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김장용품 판매 증가

‘김장 성수기’를 맞아 절임 배추부터 김장비닐, 고무장갑, 김치냉장고 등 다양한 품목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김장용품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가계부채 증가·불확실성 여전”

한은, 7연속 기준금리 동결

연 3.50%... “긴축기조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와 대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30일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올해 1월 3.25%에서 3.50%로 인상한 이후 7차례(2·4·5·7·8·10·11월) 회의 모두 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미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물가 상방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17~22일 51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의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96%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성장 둔화 요인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주요국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근원물가는 더디게 둔화되고 있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국제금리가 큰 폭 하락하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약세를 나타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유가 움직임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및 파급효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국내 경제는 수출 회복세 지속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도 양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에 부합하는 1.4%로 예상되고 내년은 2.1%로 높아지겠지만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와 더딘 소비 회복세의 영향으로 지난 전망치(2.2%)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성장 경로에는 국내외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의 파급 영향,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물가는 비용 압력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근원물가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각각 3.5%, 2.3%로 예상했다. 8월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금통위는 “국내 물가는 수요 압력 약화,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하락 영향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예상보다 높아진 비용 압력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에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지희 기자 jhsseo@

세계 최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가수취 4%↑ 출하·도매 7% 절감

백종원 ‘더본코리아’ 첫 거래 달성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농산물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온라인도매시장이 문을 연다. 농가는 직접 판매가 가능해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유통 경로를 줄여 가격은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aT센터에서 개최했다.

농산물은 공영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중이 크다. 전국 산지에서 농산물이 모이고 다시 분산되는 구조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상품 거래가 체결되면 산지에서 구매처로 상품이 직접 배송된다.

출하자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을 거쳐

구매자에게 가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3단계 농산물 유통이 1~2단계로 단축돼 그만큼 유통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산자는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고, 구매자는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살 수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에 앞서 농식품부가 시범 운영 기간에 이뤄진 111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높아졌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인해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 시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

도, 빛깔, 크기 등 상세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품질 관련 분쟁 발생 시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는 3년간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를 상한 1.85%)과 일부 보험료 환급,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 택배비 등 비용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초기에는 과일, 쌀, 달, 돼지고기 등 38개 품목을 판매하고 이후 가공식품 등 품목을 추가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로 백종원의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전남 무안군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 양파 10톤을 주문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전자기술연구원, 자율주행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초격차 스타트업 테크컨퍼런스 참여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자율주행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KETI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타워 SKY 31에서 열리는 ‘초격차 스타트업 테크컨퍼런스’에 참여, 자율주행 기술 분야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 기술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어갈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사 이상을 육성하기 위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민관 합동으로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올해 295개사를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테크컨퍼런스는 델타엑스 등 신산업 분야 우수 스타트업 10개 사에 대한 포상으로 시작해 로봇 분야 기조 세션을 포함한 7개 기술 분야 세미나와 대기업·공공기관 간 기술교류회 등 8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모라이와 젠제에이아이 등 우수 혁신 스타트업 제품이 전시됐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중기부 장관 표창을 받은 델타엑스는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의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대기업과의 기술 검증(PoC, Proof of Concept) 등 우

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이다.

자율주행 분야 기술 세미나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 지능형 드라이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앞으로 시장 내 자율주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설명을 전달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관련 학계, 산업계, 연구계에 종사 중인 패널들의 토론을 통해 자율주행 분야 기술현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자율주행 스타트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대기업과 딥테크 스타트업 간의 기술 협업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KETI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KB 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따뜻한 말 한마디에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은행은 저에게 대출상담 과정에서
인망함과 좌절감을 가져다 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 마음을 열게 해준 분이
'화성남양지점 홍태준 부지점장님' 이십니다.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딸의 병간호로
장사를 그만두고 지쳐 있는 저에게
'기운 내세요.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의 빗장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납니다.
살면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이런 진심 어린 말을 듣거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부지점장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셔서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과 희망을 주세요.”

편지를 보내주신 남성은 고객님의 감사합니다.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따님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하는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냉전시대 재편 ‘외교 거목’… 키신저 전 美 국무장관 타계

안보보좌관·국무장관 첫 겸임자
미-중 수교, 미-소 데탕트 전인
베트남戰 종전 공로 노벨평화상
한반도 긴장 완화·평화 구축 노력

‘핑퐁외교’의 주역으로 1970년대 미-중 수교와 베트남전 종식 등을 주도해 냉전 시대 세계 질서를 재편한 전설적인 외교관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이 세운 국제 외교정치 컨설팅 기관인 키신저 어소시에이츠는 “존경받은 미국인 학자이자 정치인 헨리 키신저가 이날 코네티컷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발표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외교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인물로 무엇보다 냉전의 세계 질서를 바꾼 전략가로 평가받는다.

유대인 출신인 키신저 장관은 1923년 독일에서 태어나 15세가 되던 해인 1938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1954년에는 31세 나이로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본격적인 정치 외교 무대에 들어선 때는 제럴드 포드 행정부 시절인 1969년이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오른



1 헨리 키신저(오른쪽) 전 미국 국무장관이 1973년 11월 24일 베이징에서 마오쩌둥 당시 중국 주석과 만나고 있다. 2 헨리 키신저(오른쪽) 전 미국 국무장관이 1974년 3월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당시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와 만나고 있다.



그는 1973년에는 제56대 국무장관에도 임명됐다.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한 사례는 키신저가 유일했다. 그만큼 그가 미국 외교정책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키신저는 1971년 두 차례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중 및 미-중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주도했다. 이듬해인 1972년 닉슨 당시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주석 간 정상회담을 이끄는 등 미-중 수교의 토대를 닦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를 계기로 20여 년의 적대관계를 청산, 관계 개선을 시작했다. 1979년 마침내 양국은 공식 수교를 맺게 됐다.

구소련과의 냉전 종식에도 크게 기여했다. 1969년부터 전략무기제한협정 협상을 주도했고 1972년 협정을 맺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냈다. 이듬해인 1973년에는 베트남전 종식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강력한 국무장관으로 평가받던 그는 차례로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외교를 재구성해 찬사를 받아왔다.

한반도 평화에도 관심이 컸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또 한국을 자주 찾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 대통령들과도 만났다.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 출범으로 국무장관에서 퇴임한 뒤에도 저술 및 연구, 강연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존 F. 케네디부터 조 바이든 현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의 4분의 1에 달하는 12명에게 외교정책을 조언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애도를 표시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뚜렷한 목소리 중 하나를 잃었다”고 추모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고 호평했다. 세평 주미 중국대사는 “키신저의 타계에 깊은 충격과 슬픔을 느낀다”며 “그는 가장 소중한 오랜 친구로 중국 국민의 마음 속에 항상 살아 있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중국 관영 CCTV가 키신저의 생애를 다룬 동영상상을 공유하는 등 중국에서는 ‘핑퐁외교’ 주역인 키신저를 추모하는 물결이 일었다.

반면 베트남전 당시 캄보디아 비밀 폭격 주도와 남미 독재자 지원 의혹, 동티모르와 방글라데시 집단학살 방조 등으로 키신저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도 나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日, 트럭 운전사 초과근무 단속… 공급망·인플레 ‘암운’

화물 90% 이상이 육로 운송 불구
내년 4월부터 연간 운행시간 제한
철도·선박 물류 분산 ‘암초’ 산적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트럭 운전사에 대한 초과 근무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본 공급망이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공장 부품부터 슈퍼마켓 신선식품에 이르기까지 일본 화물의 90% 이상을 책임지던 트럭운송에 비상이 걸리자 당국과 업계가 대응책 고심에 나섰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8년 통과한 초과근무 제한법을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초과근무와 저임금에 시달렸던 트럭 운전사들은 이제 연간 960시간 운행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치가 트럭 운송 비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가계 재정에도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운송 비용이 오르면 식품과 음료, 기타 도매 등 다른 산업의 비용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 트럭협회 조사에 따르면 트럭업체 중 30%는 연간 9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자를 보유하고 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추가 노동력을 배제하게 되면 2030년 운송 수요가 공급을 35%나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내 화물 90% 이상이 도로를 통해 운송되고 있어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100대 넘는 트럭을 보유한 화물업체 한사의 유카리시모무라 대표는 “가장 큰 영향은 하청업체 같은 소규모 운송회사에 미칠 것”이라며 “그들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고객은 더 느리고 품질 낮은 배송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당연하게 여겼던 서비스를 받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급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해 추경 예산에서 트럭 운송 지원에 160억 엔(약 1403억 원)을 배정했다. 또 트럭 운송 물량을 철도나 선박 운송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꾀하고 있다. 여성과 외국인 운전자 채용을 장려하는 방안 등도 모색 중이다.

다만 일본 물류시스템연구소의 호조 마사루 연구원은 “일본 철도 네트워크는 여객 열차가 장악하고 있는 데다 승무원 노령화 문제가 해운 업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전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블룸버그는 “인구 고령화는 관광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지지를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中제조업 2개월째 위축 “일본식 경기 침체 우려”

중국 제조업 경기가 두 달 연속 위축하고 비제조업 활동 지표가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또다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30일 발표한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49.4를 기록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49.7을 밑돌고 경기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인 50에 못 미친 것이다.

중국 제조업 PMI는 4월 49.2를 기록한 후 5개월 연속 위축됐다. 9월 50.2로 집계돼 잠시 기준선인 50을 웃돌았지만, 10월과 11월에는 다시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1월 비제조업 PMI는 전달보다 0.4포인트 떨어진 50.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비제조업 PMI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다. 자오칭허 국가통계국 수석 통계사는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의 제조업체가 시장 수요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면서 “불충분한 시장 수요는 현재 제조업의 회복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밝혔다.

PMI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획기적인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많은 전문가가 중국 정부가 가계 소비와 시장 중심의 자원 배분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일본식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전했다.

괌타이주안인터내셔널의 저우하오이코 노미스트는 “제조업 PMI 결과는 정부의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이현 기자 cahyun@

미국인 ‘극단적 선택’ 사상 최다… 발목 잡힌 기대수명

전년비 1.1년 늘어난 77.5세 불구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 못해

지난해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다만 극단적 선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미국인 기대수명이 전년보다 1.1년 늘어난 77.5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대수명은 당해년도 출생한 유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가리킨다.

이러한 개선은 주로 코로나19 사태 완화 및 심장 질환·암 사망률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과 2021

년에는 기대수명이 각각 77세와 76.4세로 2년 연속 줄었다. CDC는 “작년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줄어든 결과”라며 “다만 증가폭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2019~2021년 줄어든 2.4년을 완전히 만회하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78.8세였다.

극단적 선택의 급증이 미국인의 기대수명 증가 폭을 제한했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

택을 한 미국인 수는 전년 대비 3% 늘어난 4만9449명을 기록했다. 이는 1941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사상 최다. 75세 이상 남성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10만 명당 43.7명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증가하는 극단적 선택이 큰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의료 종사자 부족, 점점 더 독성이 강해지는 불법 약물 공급, 총기 보편화 등이 이러한 선택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총기에 의한 극단적 선택은 2만699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변효선 기자 hsbyun@

“글로벌 완성차 정조준”…현대모비스, 차량용 QLD 개발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QLD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고사양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차세대디스플레이를 앞세워 글로벌 완성차 대상 신규 수주에 나선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QLD디스플레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QLD디스플레이는 본래의 색을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 색 재현율을 높이는 ‘퀀텀닷’과 밝은색과 어두운색 명암비를 높여 선명한 화질을 구현하는 ‘로컬디밍’ 기술이 융합된 제품이다. 화면의 밝기와 선명도를 극대화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게 두께도 줄일 수 있다.

QLD디스플레이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차세대 고급화 제품으로 주목받

자체설계해 세계 최초 선포

퀀텀닷·로컬디밍 기술 융합

대화면·고화질·슬림화 장점

신기술 앞세워 신규 수주 기대

고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높은 성능을 구현하지만 가격이 비싸 적용이 쉽지 않았다. QLD디스플레이는 OLED와 유사한 수준의 성능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한 QLD디스플레이는 고화질을 결정하는 색 재현율과 명암비를 OLED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27인치 대화면 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차량용 QLD디스플레이.

사진제공 현대모비스

브드 화면과 14.5mm의 얇은 디자인도 특징이다. 고객 요구에 따라 10mm 수준까지도 줄일 수 있다.

현재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현과 슬림화 설계가 가능한 QLD디스플레이 같은 융합 기술 제품이 필요하다.

현대모비스는 새로 개발한 QLD디스플레이를 내세워 차량용프리미엄디스플레이 분야 신규 수주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북미와 유럽 등 글로벌 완성차 고객사를 직접 방문해 기술 소개와 시연을 진행하면서 제품 경쟁력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의 첨단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는 추세”라며 “현대모비스의 신기술 역량으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업황악화’ 에코프로, 하반기 채용 결국 미뤘다

3분기 영업이익 69% 급감 여파
‘내년 상반기로 전형 연기’ 공지

에코프로그룹이 하반기 계획한 채용 일정을 수차례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수요 둔화, 원재료 가격 하락 등 업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신규 인력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에코프로그룹은 전일 포항캠퍼스 운영직 신입·경력 지원자들에게 채용 전형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조정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전형은 지난달 중·하순께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에코프로 채용팀 담당자는 “최근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채용 전형 일정을

조정한다”며 “내년 상반기 채용 전형 진행 시 메일이나 문자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8월 진행된 전형에서도 합격자들의 최종 입사일이 11월 초에서 내년으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배터리 산업은 전방산업인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해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에코프로그룹도 이 같은 ‘경영 여건 변화’에 따라 채용 규모를 축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코프로의 3분기 영업이익은 650억 원으로, 전년 동기과 비교해서 69% 급감했다. 주요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도 같은 기간 68% 감소한 4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내년으로 미뤄진 채용 일정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실적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리비안, 포드, 폭스바겐 등 주요 고객사의 수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공장 가동률뿐 아니라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증설 계획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에코프로그룹 관계자는 “내년 공장 전체 가동을 염두에 두고 4조 2교대를 위해 인력 충원 예정이었는데, 공고 이후 2~3개월 사이 상황이 급변하고 경영 환경이 안 좋아져서 채용 일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전미자동차노조〉

‘無노조’ 13개사 군침 흘리는 UAW 현대차 美법인 ‘노조 가시밭길’ 열리나

최근 파업 대응 거둔 UAW
노조 결성으로 영향력 확대

전미자동차노조(UAW)가 현대자동차, 테슬라, 도요타 등 미국 내 생산공장을 둔 무노조조합 자동차 제조사 13곳을 상대로 노조 결성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대차가 한국뿐 아니라 미국 공장에서도 노조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AW는 이날 13개 자동차 제조사 공장 노동자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노조 결성 캠페인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제조사 13곳은 현대차를 비롯해 테슬라, 도요타, 혼다, 닛산, BMW, 메르세데스-벤츠, 볼보, 폭스바겐, 마쓰다, 스바루, 리비안, 루시드 등이다.

손 페인 UAW 위원장은 10월 말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제조사 ‘빅3’와의 파업 종결 협상 타결 후 “2028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왔을 때는 ‘빅3’가 아니라 ‘빅5’ 혹은 ‘빅6’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UAW에는 현재 ‘빅3’ 조합원 14만 5000명을 포함해 총 40여만 명

이 가입해 있다.

UAW는 그간 자동차 제조사들이 생산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입지가 좁아졌다. 하지만 최근 파업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계기로 노조 영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십 년 만에 대대적인 노조 결성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주요 포섭 대상은 현대차, BMW 등 외국계 자동차 공장 수십 곳이 들어선 남부 지역과 무노조 원칙을 고수 중인 테슬라로 알려졌다. UAW는 과거 수차례 신규 노조 조직화에 실패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빅3와 기록적인 합의를 이뤄냄에 따라 성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3년여 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사측보다는 노조 측으로 힘의 추가 기울어져 있다는 점도 현대차 미국법인의 노조 합류 가능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UAW는 6주 간의 파업을 통해 빅3와 2028년 4월까지 총 25%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그 여파로 현대차 미국법인도 지난달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앨라배마 공장 등의 생산직 직원 4000명 시간당 임금을 25%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영 기자 mint@

英탑기어 ‘올해의 차’에 현대차 아이오닉 5 N

기아 EV9 ‘올해의 패밀리카’

현대자동차그룹이 영국 자동차 전문매체 탑기어가 주관하는 ‘2023 탑기어 어워즈’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인공은 ‘올해의 차’로 뽑힌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N과 ‘올해의 패밀리카’로 선정된 기아 EV9이다.

올해의 차로 선정된 아이오닉 5 N은 현대차의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다.

심사위원인 폴 호웰은 “뛰어난 주행 성능과 차원이 다른 운전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아이오닉 5 N은 전기차 시대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갈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올해의 패밀리카로 선정된 EV9은 기



‘2023 탑기어 어워즈’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 N. 사진제공 현대자동차

아가 글로벌 전동화 선도 브랜드로 도약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는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울리 쿨탑기어 부편집장은 “EV9은 긴 주행 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수납 공간과 편안한 시트 등을 갖춘 점이 패밀리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민재 기자 2mj@

무협 “올 수출 7.8% 줄지만, 내년엔 7.9% 증가 전망”

2023·2024년 수출입 보고서

반도체·대중국 수출 급감했지만

내년 무역수지 140억弗 흑자전환

올해 한국의 수출이 작년보다 7.8% 줄어든 630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의 수출 급감과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이 겹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내년에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모두 증가해 전체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올해 한국의 수출은 6300억 달러로 작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6450억 달러로 11.8% 감소해 한국의 올해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한국의 13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8개 품목의 올해 1~10월 수출은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다. 자동차 등 5개 품목 수출은 늘어났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24.4%, 컴퓨터

터는 50.5%, 석유제품은 16.0% 각각 감소했다. 석유화학(-16.0%), 디스플레이(-10.0%), 섬유류(-9.8%) 등의 수출도 줄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이 27.4% 증가한 것을 비롯해 선박(16.1%), 일반기계(3.3%) 등 품목은 수출이 늘었다.

보고서는 내년 한국의 수출은 올해 대비 7.9% 증가한 68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은 3.3% 증가한 6660억 달러로 내년 무역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청년기업 성장발판 ‘공공구매제’… 공정경쟁 위한 제도 절실”

중기부, 청년기업 대표 간담회

성능인증제도 받아도 경쟁서 탈락
사각지대 보완, 혁신 중기 도와야
선정절차 간소화·인센티브제 제안
오기웅 차관 “제도개선 적극 검토”

#A사는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제도를 받았지만, 주요 부품을 수입하면서도 서류 작업만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오히려 선정에서 밀리는 경험을 했다.

청년 창업기업가들이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해 성능인증제도를 실질화하는 등 제도를 꼼꼼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 중소기업 제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0일 서울 엘타워에서 청년 창업기업가들과 간담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청년기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창업 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와 ‘성능인증제도’ 등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한 빛글 등 5개 청년 창업가를 초청해 공공구매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는 창업기업과 조달실적이 낮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해 공공기관

납품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성능인증 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품질·성능을 확보했음을 인증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지호 빛글 대표는 “LED 경관조명기구”에 600개 넘는 업체가 등록돼 있는데, 인증제도가 허점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폐이퍼 워크로만 돌아가는 인증기업들과 경

쟁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 업체들의 공통점은 정부와 관계있던 사람이나 자본이 많은 사람이 유통만으로 기술 중심 시장에 들어온다”며 “제도를 꼼꼼하게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촉매 공기정화LED 평판등을 제조하는 더바이오의 정석순 대표는 “공공기관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90%를 하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곳은 설계를 공공사업에 딱 맞춘다”고 밝혔다. 그는 편하게 이런 곳의 제품만 찾지 않고 혁신적인 제품을 구매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내공간 유해물질 제거 환기구 필터를 생산하는 씨에이랩은 이를 통해 서울·부산 지하철공사 등에 납품할 기회를 얻었다.

이승욱 씨에이랩 대표는 “영업을 해보다 보니 혁신 제품만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공공구매제도가 청년기업들의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재용 마스크 제품을 생산하는 엘립의 박건아 대표는 창업기업의 혁신 제품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납품을 하다 보면 그런 서류 요청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가적으로 처리할 것이 너무 많다”며 “신성장, 혁신 제품은 분류 받게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능인증 제도의 인증 유효기간(3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다양한 산업 제품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오 차관은 “내년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신규 지정하는 해”라며 “신제품들이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365일 숙면을 위한 안전한 선택 굿슬립가바 365

예전만큼 쉽게 잠들지 못하고
폭 잔 느낌이 없다면,
하루 2정으로 수면의 질을 높여주세요

바이탈뷰티 굿슬립가바 365는
매일 먹어도 안심이니까.
365일 숙면 라이프!

*굿슬립가바 365는
믿을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설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수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중 기능성 주원료 함유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이아신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

·취침 1시간 전 1일 2정 섭취
·기능성 원료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함유

굿슬립가바 365, ‘가바’란 무엇인가?

아모레퍼시픽은 뇌조직의 수면관련물질, 가바(GABA, Gamma-aminobutyric acid)를 연구하여 외부에서 보충할 경우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L-글루탐산발효가바분말은 유산균 발효를 통해 수면과 관련된 가바와 동일한 구조로 제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면의 질 기능성을 인정받아 매일 꾸준히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개선 기능성 원료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기능성 원료인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의 인체적용시험결과 총 7가지 지표 [수면 효율/수면 잠복기/총 수면시간/비렘수면 3단계/총 각성시간/입면 후 각성/피츠버그 수면의 질 평가설문지의 총점 및 세부항목(수면량, 복기 변화량, 평소의 수면 효율)]에서 유의적 개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체시험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님)

바이탈뷰티

·제조원 및 유통전문판매원 : (주)아모레퍼시픽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0일분(60정), 37,000원

“심심한 사과를 먹는 건가요?” 교육업계 ‘문해력 업’ 쟁점

진학사 “Z세대 45%가 뜻 몰라”
응답자 70% “영상매체로 공부”
업계, 취약세대 공략 맞춤 학습

“심심하지 않은데 심심한 사과라는 게 뭐죠?”, “금일이 금요일 아닌가요?”, “중식 제공인데 왜 중국 음식이 나오지 않는 거죠.”

초중고학생들의 문해력 결핍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정작 내용은 이해하지 못해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서다. 문해력은 모든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학습 도구다. 초등 수학 문제조차 문해력이 부족하면 풀이가 어렵다. 이에 교육업계에서도 문해력에 취약한 세대를 공략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진학사가 Z세대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변 혹은 또래 중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은 37%에 달한다. 반대로 ‘적당’ 고답한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Z세대의 문해력 부족은 간단한 테스트로도 잘 드러난다. 매우 깊은 사과를 의미하는 ‘심심한 사과’의 뜻을 맞추는 비중은 55%에 그쳤다. 사흘 후를 뜻하는 ‘글피’에 대한 정답률도 60% 남짓이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졌다.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진 데다 영상 매체 이용 증가 등이 영향을 키웠다. 응답자 70%는 여러 매체 중 유튜브와 숏폼 등 영상 콘텐츠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 했다. 반면 책과 신문 등 인쇄물 선호 비중은 3%에 그쳤다. 문해력을 키워주는 독서와 관련해서도 1년



에 책을 1~3권 읽는다는 비중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비중 16%가 됐다.

문해력 학습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교육업계도 관련 콘텐츠 개발과 제공에 나서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최근 전 과목 AI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에 문해력 전문 솔루션 ‘모두의 문해력’을 오픈했다. 문해력 권위자 조병영 한양대학교 교수가 기획과 개발에 참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커리큘럼은 수준에 따라 초·중·고급으로 나뉘며 총 300차시로 구성돼 있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인공지능(AI)이 어휘력, 읽기 유창성 등 아이들의 문해력 수준을 진단한 뒤 맞춤형 학습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각 차시의 학습시간은 15~20분 정도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다. 또 글, 문제를 이해한 과정을 되짚어 보며 사고를 확장하는 ‘리즈닝’ 활동, 알고있는 어휘를 재확인하는 ‘메타인지’ 활동, 다양한 문장 속 맥락을 통해 단어 이해도를 점검하는 ‘어휘 파악 전략’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임원 줄이고 외부수혈”... 김영섭 첫 인사 ‘실용주의’ 택했다

KT, 2년 만의 정기 인사

상무 이상 임원 98명→80명
상무보는 312명서 264명으로
임원 20% 줄이고 준법경영 강화
임현규·이용복 등 외부인재 영입

KT 인사 주요 내용

상무보 이상 임원 20% 축소

상무 이상 임원 98 → 80명
상무보 312 → 264명

외부 전문가 영입

기술혁신부문장·경영지원부문장·
법무실장 등 외부 전문가 영입

기능중심 조직 개편

-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 해체
- 주요 C레벨 임원, CEO 직속으로 편제
- IT·R&D 통합 기술혁신부문·
KT건설팅그룹 신설

KT가 김영섭 대표 취임 후 첫 인사·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전체 임원 수를 20% 줄이는 대신 인공지능(AI) 등 기술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정보통신기업(ICT) 도약을 위한 체질개선에 나섰다.

KT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권 카르텔’ 논란 속에 경영권 공백 사태를 겪었던 만큼 준법 경영 강화와 대내외 신뢰 회복, 장기적 성장 발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KT는 상무보 이상의 임원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 상무 이상의 임원은 98명에서 80명으로, 상무보는 기존 312명에서 264명으로 대폭 줄었다. 그간 KT그룹사의

핵심 보직이 KT 임원들의 퇴임 수순으로 활용된 기존 관행을 폐지하는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신 실질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내외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특히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법무, 윤리(감사), 경영지원 부서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고 그룹사의 경영·사업리스크에 대한 관리 및 조정 기능을 강화에 나섰다.

신임 경영지원부문장으로는 신문방송학 교수 경력을 갖춘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임현규 부사장을 영입했고, 법



무실장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용복 부사장을 기용했다. 이 부사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를 지냈다. 윤리부서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대신 KT는 신기술 개발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 기능은 강화했다. 특히 연구 단계에서 서비스 구현까지 기술개발 전과정의 혁신을 위해 기존의 IT 부문과 융합기술원(R&D)을 통합해 ‘기술혁신부문’을 신설하고 기존 연구조직인 AI2XLab과 외에도 AI테크랩(AI Tech Lab)을 추가로 신설했다. 또한, 기술혁신부문 산하에 클라우드, AI, IT 분야 컨설팅 조직인 ‘KT컨설팅그룹’을 신설한

다. 역할이 중복되는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은 해체해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부문장(CTO·최고 기술책임자) 직급을 신설해 오승필 부사장을 이 자리에 앉혔다. 오 부사장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현대카드 등을 거친 IT 전문가로 KT의 IT와 AI 거버넌스(지배구조) 체계 수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술혁신부문 산하 KT컨설팅그룹장에는 정우진 전무를 영입했다. 정 전무는 삼성SDS, MS, 아마존웹서비스 등을 거친 디지털클라우드 기술 컨설팅 전문가다.

커스터머부문장과 엔터프라이즈 등 주요 보직은 내부 인사인 이현석·안창용 부

사장이 각각 맡게 됐다. 대신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인사책임자(CHO) 등 C레벨을 편제해 경영지원 기능을 조직화했다. CSO에는 커스터머 전략부서 출신의 박효일 전무, CFO에 BC카드와 케이뱅크 등 금융 그룹사 출신인 장민 전무, CHO에는 인사와 기업문화, 커뮤니케이션 전략 부서를 두루 거친 고충림 전무가 낙점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는 KT가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객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KT 그룹 임직원과 함께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이통사 연말 인사키워드는 ‘AI’... ICT 주도권 경쟁 본격화

올 연말 이통통신업계의 인사키워드는 인공지능(AI)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KT와 LG유플러스가 AI 조직을 신설, 강화하거나 담당 실무자를 전진 배치하는 모습이다. 인사를 앞두고 있는 SK텔레콤 역시 연말 ‘AI 컴퍼니’를 강조해왔던 만큼 AI에 힘을 실어주는 개편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전 직원 대상 인사를 실시한 KT는 정보기술(IT)과 연구개발(R&D) 통합 ‘기술혁신부문’ 신설했다. 이 부문에서는 AI 등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담당한다. AI 등 핵심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거래(B2B) 시장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존 IT 부문과 융합기술원을 통합해 기술혁신부문을 신설한다.

KT, IT부문과 융합기술원 통합 ‘기술혁신부문’ 신설 DX 가속화
LG유플도 AI 실무자 전진배치
SKT는 유영상 연임 여부 관심

AI 연구 개발 조직도 강화한다. 기존 AI2XLab과 외에도 AI Tech Lab을 추가로 신설해 AI분야 핵심 기술 경쟁력을 키워간다는 방침이다. 기술혁신부문 산하에 △클라우드 △AI △IT 분야의 역량이 뛰어난 고수 집단의 ‘KT컨설팅그룹’을 신설한다.

김영섭 대표는 AI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담아 회사 비전도 새로 설정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전문

통신3사 연말 인사		대표		비고
회사	일시			
	11월 23일	황현식 대표 연임		- AI 실무자 전진배치. 전병기 LG유플러스 AI·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 전무로 승진
	11월 30일	김영섭 대표 취임 (2023년 8월 30일)		- IT·R&D 통합 ‘기술혁신부문’ 신설, AI로 DX 가속화 - 연구 개발 조직 강화. ‘AI Tech Lab’, ‘KT컨설팅그룹’ 추가 - 회사 비전 ‘고객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로 설정
	12월 초	유영상 대표 연임 여부 주목		- ‘AI 컴퍼니’ 전환 외친 SKT, AI 강화 조직개편 및 인사 전망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객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디지털 혁신 파트너’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그동안 KT가 내건 ‘디지털 KT’를 대신한다.

LG유플러스 역시 AI 실무자를 전진배치하는 인사를 보여줬다. 전병기 LG유플

러스 AI·데이터사이언스그룹장을 전무로 승진시키며 미래기술과 신사업 육성에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 측은 “AI·데이터 기반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관점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 신사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극 중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내달 초 대표 인사를 기점으로 내년 초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인 SKT의 인사키워드 역시 ‘AI’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SK그룹 인사에서 유영상 대표의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최태원 SK 회장이 역점을 두는 AI 사업을 무난하게 지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유 대표가 직접 공개한 AI 개인비서 애플리케이션 ‘에이닷’은 아이폰 통화 녹음·요약 기능 등으로 인기를 끌었고, ‘AI파라미드’ 전략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ICT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AI이고, 이를 위해 AI를 강화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SKT 역시 AI 중심으로 혁신을 앞당기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카카오T 배차시스템 개편... 현행 AI와 ‘최단거리 배차’ 병행

카카오모빌-택시4단체 합의 수수료율은 더 논의하기로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4단체와 자사 플랫폼인 카카오T ‘배차 시스템’을 손질한다. 기존 수락을 위주 방식에 ‘최단거리 우선 배차’를 병행한다는 게 골자다. 새로운 가맹 서비스는 가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들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수수료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택시업체들은 목적지 미표시제 도입을 다시 요구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법률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일 택시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만나 택시 배차 정책을 전면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수락을 위주로 인공지능(AI)이 첫 콜카드를 보내는 배차 정책을 바꾸고 최단거리 우선 배차 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수락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하기 위해 추천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승차거부나 택시대란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단순화한 새로운 가맹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가맹 가입자의 신규 서비스 전환을 돕고, 래핑이나 설치 등을 통해 가맹가입 부담을 최소화한다. 기존에 붙어있던 카카오 측의 이모티콘 등은 최소화하고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가맹 운영 시에는 지역별 상황을 최대한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택시는 지역별 현안과 이슈가 달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지역별로 자율적인 상생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에도 정확한 수수료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회동에선 양측 모두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세부적인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4단체와 첫 회동 이후 가맹 택시의 수수료율을 3% 이하로 낮춘 신규 가맹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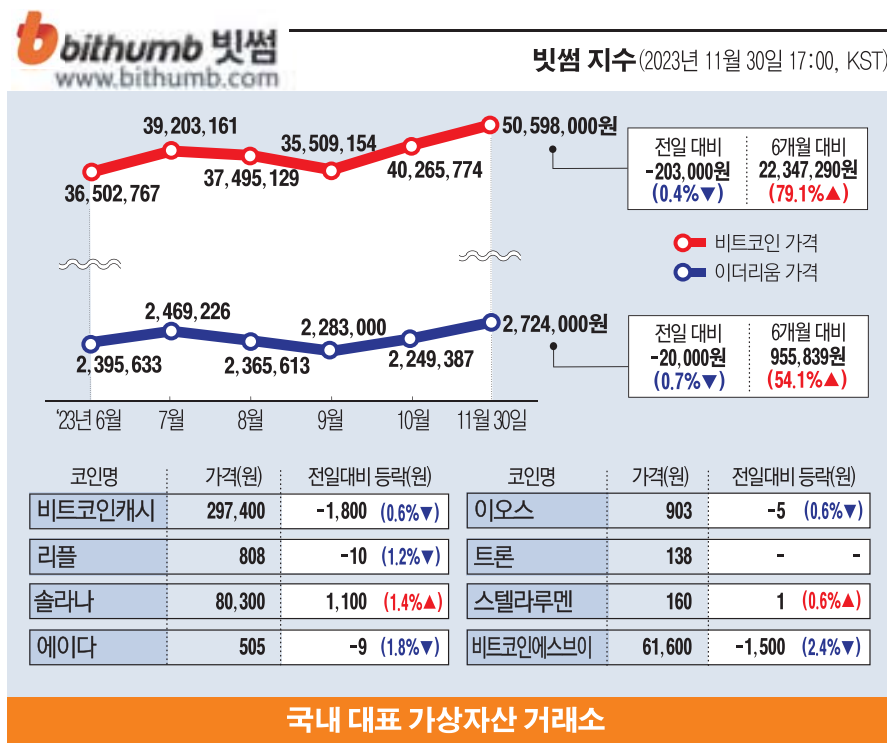
택시대체들은 이날 역시 ‘목적지 미표시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법률이 개정되면 따르겠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플랫폼사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표시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택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에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지만, 호출만 이어주는 일반 택시에는 목적지를 표시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4단체 및 가

맹점협의회와 카카오모빌리티는 30일 실무회의를 열고 공정배차를 위한 배차 정책의 전면 개편과 수수료 3% 이하의 신규 가맹서비스 추진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선 계속 협의를 해 12월 중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전국 아파트값 23주만에 하락 전환... 서울도 '보합' 턱걸이

부동산원, 11월 넷째 주 동향
약세 돌아선 아파트값 현실화
올해 전국 -4.99% 서울 -2.28%
전셋값은 19주 연속 오름세
상승폭은 0.02%p 줄어 0.08%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23주 만에 하락 전환됐다. 서울 아파트값도 상승세가 둔화가 이어지면서 반년만에 '보합'(0.0%)을 기록했다. 반면, 전셋값은 매매가 약세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매매가 대비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1%포인트(p) 하락한 -0.01%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 기록은 지난 6월 19일 이후 23주만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6월 19일 -0.01% 기록 후 3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고, 7월 17일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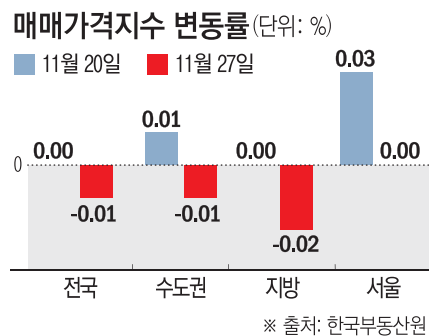
에 성공한 바 있다.

서울아파트값은 이번주 보합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0.03% 상승 대비 0.03%p 내리면서 하락 전환을 앞두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5월 22일 0.03% 상승을 시작으로 지난주까지 26주 연속 올랐다. 하지만, 이번 주 보합을 기록하면서 반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설 태세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 전환 영향으로 이번 주 기준 올해 전국 누적 변동률은 -4.99%를 기록했다. 서울은 누적 2.28% 하락했다.

서울 내 지역별로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중 서초와 강남구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또 마포와 서대문구 등 주요 지역에서도 하락 전환이 속출했다.

이번 주 서초구는 -0.02%, 강남구 -0.04%, 송파구는 0.01% 등을 기록했다. 강동구는 지난주보다 0.05%p 하락한 0.02%로 집계됐고 용산구는 지난주보다 0.05%p 줄어든 0.05% 상승으로 나타났다.



다. 성동구는 0.02% 상승에 그쳤다.

서울 내 다른 지역에서도 하락 폭이 커지면서 하락 전환 지역이 속속 등장했다. 이번 주 강북구와 노원구는 각각 -0.03%와 -0.04%로 집계됐다. 종로(-0.01%)와 서대문(-0.02%), 동작(-0.02%), 관악(-0.03%) 역시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이어졌지만, 거래가 줄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매물이 쌓이는 등 보합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집값 약세도 계속됐다. 인천은 이번 주 -0.07%를 기

록해 전주 대비 0.02%p 추가 하락했다. 경기지역은 전주 대비 0.02%p 하락한 보합으로 집계됐다. 하남시(0.17%)와 과천시(0.28%), 양주시(0.16%) 등은 강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상승 폭은 소폭 둔화해 지난주보다 0.02%p 하락한 0.08%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전주 대비 0.02%p 하락한 0.14%로 집계됐고, 지방은 지난주와 같은 수주인 0.03%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전주 대비 0.01%p 하락한 0.16% 상승으로 28주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고가 매물은 하향 조정됐지만, 학군지나 선호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혼조 속 상승세가 계속됐다"고 분석했다.

인천과 경기지역 역시 전주 대비 전셋값 상승 폭이 줄었다. 인천은 이번 주 보합을, 경기도는 0.15% 상승을 각각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대구(-0.05%)와 부산(-0.04%), 전남(-0.03%) 등이 전셋값 약세를 보였다.

정용욱 기자 dragon@

‘목동 CBS 부지’를 뉴미디어 거점으로

내년 지구계획, 2027년 착공
록펠러광장 같은 문화공간도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중심지구 에 있는 목동 CBS 부지가 지역발전을 견인할 뉴미디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다시 태어난다.

30일 서울시는 전날 발표한 '서울 창조산업의 비전' 기초에 맞춰 기존 방송국 부지였던 이 일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뉴미디어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경제의 미래 동력으로 창조산업에 주목하고 2028년까지 창조산업의 성장기반이 될 산업별 인프라를 △남산(창조산업허브) △상암(XR, 1인 미디어, 게임) △충무로(영상) △목동(뉴미디어) 일대에 총 6개소, 16만7000㎡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시는 목동 CBS 부지 개발을 통해 목동 중심부에 첨단업무와 미디어 콘텐츠 집적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연결해 K-미디어

콘텐츠의 새로운 명소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목동 CBS 부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연면적 약 8만㎡ 규모로 개발되는 데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와 고려한 근린생활시설과 지원시설이 입지하고 상층부에 도심 혁신인프라로서 뉴미디어가 특화된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권장업종은 방송·미디어·콘텐츠 관련 및 연관 업종으로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다.

목동중심지구의 주요 보행축인 보행자전용도로와 오목광장을 연계해 공개공지와 선로를 개성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서울광장 3분의 1에 해당하는 크기로 뉴욕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록펠러광장과 같이 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장소로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생각이며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보규 기자 jbk@

삼성물산, 국내 첫 '그린수소' 생산시설 만든다

경북 김천에 내년말까지 구축
에너지기관·기업과 업무협약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신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구축에 나선다. 그린수소는 오로지 신재생 에너지만을 활용해 생산되는 수소로,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삼성물산은 경상북도 김천시에 오프그리드(Off-grid) 태양광발전소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 청정 에너지원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구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상북도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4년 12월까지 수전해 설비 등 구축을 완료해 2025년 1월부터 실제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된 수소는 수소차 충전소를 비롯해 인근 지역 연료전지 발전에 친환경 연료로 활용된다.

삼성물산은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과 그린수소 생산시설 및 이를 연계하는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비롯해 주요 기자재 구매, 시공 등 EPC를 총괄한다. 특히 운영(O&M)에



김천시 소재 그린수소 생산기지 구축 조감도. 사진제공 삼성물산

도 참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외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이날 김천시청에서 김천시, 에너지관련 기관, 공기업, 민간기업과 오프그리드(Off-Grid)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엇보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김천시를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기술, LS일렉트릭,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에스퓨얼셀 등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대거 참여해 역량을 결집한다.

한진리 기자 truth@

50+세대 고품격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월호 발매

BRAVO SPECIAL
마지막을 위한 시작, 웰다잉

PART 1. 웰다잉 정착 가로막는 현실의 장벽
PART 2. 마지막 순간, 스스로 결정해도 될까?
PART 3. 해외의 웰다잉 문화, 가장 죽기 좋은 나라의 '죽음'
PART 4. "AI로 다시 만나다" 디지털 웰다잉 신세계
PART 5. 죽음으로 되새긴 삶의 의미, 눈물의 임종 체험

BRAVO INTERVIEW

가수 김정민
지금을 치열하게 사는, 옛날 사람

Monthly Theme
폭넓어진 기부 문화, 건강한 사회의 따뜻한 체온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
돌담장 따라 조선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고택들

레시피
국밥과 매생이국전

브라보 여행
유달산 기슭에 깃든 골목 이야기, 레트로 목포

귀농귀촌
돈 벌 생각 없이 농사를 취미 삼아 즐기는 까닭은?

법률 가이드
살의 아름다운 마무리 '유언' 어떻게 준비할까

시니어연극단 대학老 배우 유만석
스물셋에 접은 꿈, 일흔여덟에 펼치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stodaily.co.kr

저축銀 연체율 6% 넘었다… 2금융권 이달 현장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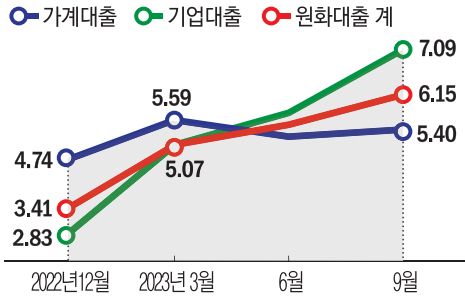
‘건전성 관리’ 선제적 대응

9월말 연체율 3개월새 0.82%p ↑
내년 초까지 2금융권서 크게 상승
11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
“ELS 은행 판매 강제로 못막아”

금융감독원이 12월 2금융권 현장점검에 나선다. 저축은행 연체율이 6%대를 넘어선 데다 2금융권 연체율이 내년 초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하반기 은행·중소서민부문 주요 현안’ 간담회에서 “(2금융권) 연체율이 내년 초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12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 연체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간다”고

저축은행 연체율 (단위: %, 월 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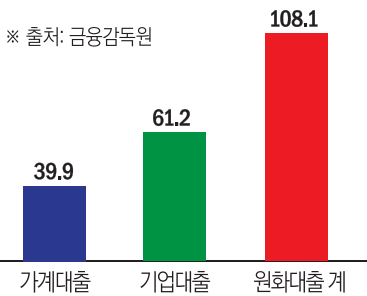


말했다. 현장 조사를 토대로 조기에 위험요인을 걸러내기 위한 것이다.

3분기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6.15%를 기록했다. 전분기(5.33%) 대비 0.82%포인트(p) 올랐다. 이는 2분기 상승 폭인 0.26%p보다 3배 이상 뛴 수치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올랐다. 이 기간 연체율이 7.09%로 전분기(5.76%)에 비해 1.33% 상승했다. 전년 말(2.83%)과 비교하면 4.26%p 급증한 것이다.

9월 대출잔액 (단위: 조원, 월 말기준)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3.10%로 전분기(2.80%) 대비 0.30%p 올랐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연체율은 카드사 1.60%, 캐피탈사 1.81%로 전분기와 비슷했다.

이 부원장은 “향후 연체 채권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속 유도하고,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건전성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감소했다. 금감원

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잠정 집계결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말 대비 2조3000억 원 순증했다. 10월 신규증가액은 6조3000억 원이었다.

이 부원장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로 11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 4조8000억 원 중 3조7000억 원이 정책성 대출금액으로 대부분 실수요자 대상의 자금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특례보증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됨에 따라 12월에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방안’을 연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은행권 대출심사 및 영업행태 상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또 올해말엔 자금의 쏠림 현상인 ‘머니무브’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을 비롯한 2금융권 모두 조달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한편, 이 부원장은 홍콩恒生중국기업지수(H지수) 추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우려와 관련해 은행의 판매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은행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은행 직원들이 판매 규정 준수를 이행해 고난도 금융상품을 취급한다면 상품을 판매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갖추고 팔면 문제가 없는 만큼 고난도 상품 취급을 모두 중단시킬 수 없다”고 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손희정 기자 sonhj1220@

코로나 엔데믹 영향에... 해외여행 붐물

해외서 긁은 카드 ‘14兆’... 작년 한해 ‘홀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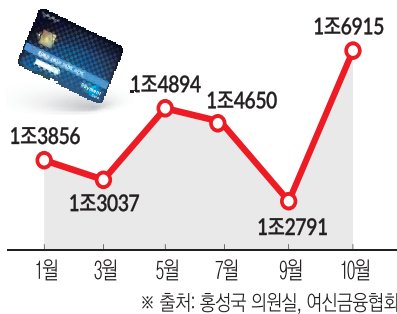
여름 휴가철 7~8월 3조원 결제 황금연휴 10월엔 1.6조 월별 최대

올해 10월까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이용액이 1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이용액을 2조 원 가까이 넘어선 규모다.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의 해외 이용금액(법인 제외)은 총 1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해외에서 긁은 12조479억 원보다 1조8521억 원 많은 수치다. 전년 동기(9조6000억 원) 대비로는 45% 급증했다.

해외 카드 이용금액 (단위: 억원)

* 2022년 누적: 12조479억 원 → 2023년 누적: 13조9917억 원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만 해외에서 3조 원이 결제됐다. 특히 추석과 공휴일 등 황금 연휴기간이 맞물린 10월에는 1조6000억 원으로 올해 월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돼 있던 해외여행 심리가 회복된 것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카드 승인 실적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9월까

지 내국인 출국자는 총 1619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4.1% 폭증했다. 올해 3분기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1541만9010명을 기록, 3년 반 만에 분기 기준 여객이 1500만명을 넘어섰다.

해외 여행 수요를 겨냥해 카드사들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해외결제 시 캐시백을 주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카드 상품도 대거 출시됐다.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주거나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해외 카드 사용액의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연말 해외여행 시즌을 앞두고 있어 해외 카드 이용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상원 기자 jsw@

이재근 행장, 국민은행 1년 더 이끌 듯

KB금융지주 ‘계열사 대추위’ 개최 차기 은행장 후보에 현 행장 추천

이재근(사진) KB국민은행장이 1년 더 은행을 이끈다.

KB금융지주는 30일 ‘계열사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재근 현 행장을 추천했다. 임기는 KB금융 내 대표이사의 연임 사례와 동일하게 1년이다.

이 행장은 영업, 재무, 전략 등 주요 핵심 직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고객과 시장, 영업 현장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주요 사업별 정교한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강점을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또한, 현장·실행 중심의 소통 경영과 세대를 아우르는 수평적 리더십, 안정적인 조직관리 역량 등도 겸비했다.

대추위는 “이 행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코로나19,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우수한 경영성과를 시현했다”며 “구상보다는 실행을 강조하는 리더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변화·혁신의 역량과 리더십, 경영전문성을 보여줬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또 내년에도 쉽지 않은 경기 전망과 상생금융 구현 등 은행의 중요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조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경영전략 추진에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12월 중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후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심사·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선임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KB금융 내 계열사 대표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조직이 가장 크다 보니 대추위에서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먼저 추천해 준비할 시간을 더 주는 편”이라며 “다른 계열사도 대추위에서 순차적으로 차기 CEO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신한금융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업무 한곳에...

진옥동 회장의 ‘슈퍼 쏘’ 나온다

〈유니버설 간편앱〉

진옥동(사진) 신한금융지주회장이 뿔뿔이 흩어진 그룹의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앱)을 한데 모은 유니버설 간편 앱 ‘신한슈퍼SOL(쏘)’을 내놓는다. 슈퍼 쏘는 진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취임한 이후 5년 동안의 숙원사업이었다. 진 회장은 “디지털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그동안 그룹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개발에 몰두했다. 신한금융의 고객들은 은행, 카드, 보험 등 업권 별 경계를 넘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앱 하나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금융은 12월 18일 그룹의 디지털 앱의 핵심 기능을 한데 모은 슈퍼앱 ‘신한슈퍼쏘’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한

5년간 숙원사업... 이달 18일 출시 고객 원하는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

슈퍼쏘는 ‘금융을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콘셉트로 신한금융의 주요 그룹사인 △은행 △카드 △증권 △라이프 △저축은행 등 5개사 금융앱의 핵심 기능을 결합해 ‘한 곳에서 빠르게’, ‘다양한 기능을 융합해 편리하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통합앱이다.

기존 신한플러스가 제공하던 유용한 멤버십 혜택을 업그레이드하고, 고객 니즈의 연결 및 확장을 통해 완결성 있는 통합 솔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 - 계좌 개설, 조회 및 이체 △카드 - 카드 발급 및 청구대금 결제 △증권 - 주식 거래 및 입출금 △라이프 -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저축은행 - 예적금 가입 및 대출 등 다빈도 업무를 파악한다.

슈퍼쏘를 설치하면 한번의 로그인만으로 한 눈에 보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 그룹사 앱의 핵심 기능을 한 앱에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는 대출 또는 투자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그룹사의 최적 상품 및 금리, 한도를 추천하고 실행까지 이어주는 ‘원클릭통합대출’, ‘원클릭투자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범근 기자 nova@

보험사기 처벌 강화... 7년 만에 ‘특별법’ 개정

‘관련자 가중처벌’ 국회 정무위 통과 1조 달하는 보험금 누수 줄어든 듯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7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1조 원에 달하는 보험금 누수가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정무위는 범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기를 알선하고 권유한 사람도 보험사기 행위자와 같은 수준(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들어갔다.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 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국회에 총 1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 6000억 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들에게도 보험료 인하 효과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줄어든다고 가정할 경우 약 6000억 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된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서지연 기자 sjy@

“증시 바닥 찍고 산타랠리 중” vs “금리부담에 사탄랠리”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2월 전망

올해 ‘산타랠리’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나타나는 주가 강세 현상)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연말·연초에 보너스가 지급돼 소비가 크게 늘고 기업의 이익이 개선되면서 주가 역시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닥을 찍은 코스피 지수가 11월에 반등하면서 이미 산타랠리가 시작됐다고 본다. 반면, 지수 저점을 높여갈 뿐 산타랠리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역사적으로 12월에는 수익률이 좋았다. 2010년 이래 12월 코스피 평균 수익률은 1.6%, 코스닥은 2.3%였다. 올해도 이 공식은 통할 것인가.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5인에게 산타랠리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금리 영향 악화 ‘산타랠리’ 유효… 연말 조정 전망도 =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11월 한달간 11.3% 상승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를 두고 산타랠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긴축 경계감이 완화되면서 약간의 유동성 랠리에 최근 많이 비워뒀던 곳에서 일종의 커버징 매수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현재 연말 랠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실적 모멘텀 강화와 금리 영향력의 악화 과정에서 산타랠리와 연말 연초 상승 기대감은 아직 유효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



이미 산타랠리 진행...
긴축 경계감 완화



실적 모멘텀 강화·금리 영향력 악화...
산타랠리 유효



금리하락·공매도 금지 조치 영향...
연말 랠리 가능성



증시 저점 높여가겠지만
산타랠리는 아닐 것



산타랠리처럼
여겨지다
연말 연초 조정 예상

리하락, 공매도 금지 조치 영향도 있다”며 “실적 모멘텀 지속 영향으로 연말 상승 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증시가 저점을 높여가겠지만, 산타랠리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경계 심리가 가장 큰 부담 요인”이라며

**긴축 완화 기대… 랠리 가능성
연준 경계심리·경기부담 상존
코스피 2400~2600 움직일 것**

“금리동결이 예상되나 점도표를 일부 수정하는 등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때때로 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 부담 우려도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택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산타랠리처럼 여겨지다가 연말 연초 조정이 예상된다”며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연준 스탠스(미국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배당 관련 프로그램 순매수의 청산 욕구가 높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12월 코스피 지수가 2400에서 260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봤다. 박·오 센터장은 2400~2600포인트를, 윤 센터장은 2400~2550, 김 센터장은 2420~2620을 제시했다. 서 센터장은 “코스피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가는 추세 상승을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월 FOMC·고용지표, 내년 증시 방향 가늠 = 수출 성장세 전환, 반도체 가격 반등 등 기업 실적 저점 통과 기대감은 긍정요인이지만,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경기 둔화 우려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서 센터장은 “금리 하락과 유동성 개선에 추격성 매수세가 붙고 있다. 안도 랠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면서도 “편드멘탈 개선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연말 북클로징(회계장부 마감)하게 되면 최근 안도 랠리를 이끌었던 추격성 매수세들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센터장은 “(지수) 추가 상승을 위해 제조업 경기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미국 등 최신 데이터들은 뚜렷한 방향성

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수 상단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다”라고 분석했다.

박 센터장은 금리 하락과 공매도 금지를 12월 증시의 긍정 요인으로, 차익 실현 물량 출회를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오 센터장은 미국 대형 우량 성장주의 경쟁적인 AI 및 클라우드 투자 확대 가능성, 단

**최근 추격성 매수 이어가려면
제조업 경기 개선세 수반돼야
실적성장주·장기채 전략 추천**

기에 낙관적으로 변화한 연준에 대한 기대를 각각 긍정·부정 요인으로 지목했다. 김지산 센터장은 연말 대주주 양도성 회피 수급 부담을 부정 요인으로 지목했다.

증시방향의 변곡점은 물가와 경기지표다. 연준 입장에서 경기침체(고용지표 악화)를 감내하고도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인지, 경기침체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 나오면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조금 열어줄 것인가가 관건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개인투자자 대응전략은… 장기국고채·반도체 등 실적 성장주 주목 = 전문가들은 연준과 금융시장의 금리 전망 차이에 따라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다며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실적 성장주 중심의 안정적인 전략을 추천했다.

서 센터장은 “자산배분 관점에서 국제 중심의 장기채권을, 주식에서는 경기 둔화 국면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퀄리티 성장주를 추천한다”고 했다. 윤 센터장은 “지수 배팅보다 연말 이익률 개선 업종 및 배당 수익률 확보를 통한 일드 추구 전략이 유효하다”며 반도체, 필수소비재, 자동차 등을 추천했다.

박 센터장은 반도체가 아웃퍼폼할 때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범IT 섹터(소프트웨어·IT하드웨어·IT가전·디스플레이 등)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수혜를 입을 소비재 업종을 주목했다. 김 센터장은 실적 회복 모멘텀을 주도할 반도체·IT·기계 업종 등을 꼽았고, 오 센터장은 구조적 성장주(M7·반도체)의 장기 분할 매수 대응을 조언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회사채 막히자… 기업어음 발행잔액 ‘역대 최대’

30일 기준 CP 121.7兆… 전월비 4.1兆 늘어
조달길 막힌 기업, 단기사채 풀리며 채무부담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는 기업어음(CP) 발행잔액이 이번 달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부담이 커지자 일반적인 기업자금조달 창구인 공모회사채 대신 단기자금 시장으로 몰리는 것이다.

30일 코스콤에 따르면 이날 기준 CP 발행잔액은 121조7185억 원으로 지난 4월 이후 또 다시 120조 원대를 돌파했다. 이는 CP 시장이 조성된 이래 최대 규모

다. 10월 117조6179억 원에서 불과 한달 만에 4조 원이 넘게 불었다. 강원도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자금경색이 심화하던 지난해 11월(114조 원)과 비교해도 7조 원 넘게 늘어난 수준이다.

올 들어 CP 잔액이 120조 원을 돌파한 달은 1월(120조3592억 원), 3월(120조622억 원), 4월(121조4432억 원) 세 차례 있었다. CP잔액은 5월부터 하락 전환

해 10월까지만 해도 117조 원 선에 머무르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이달 들어 120조 원대로 다시 대폭 증가했다.

CP 발행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들의 단기사채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단기채 시장이 확대하는 만큼, 향후 기업이 미래에 갚아야 하는 채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CP는 공모 회사채와 달리 발행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나 공시 의무가 없

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조달 방법이다. 반면, 기업의 단기불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때 차환 부담도 가중되기 쉽다. 현재처럼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유동성 mismatch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전체 CP발행잔액 가운데 만기가 1년 이하인 물량은 86조3085억 원으로 70.9%에 육박한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자 기업들이 단기

시장에서 자금조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9월(8조560억 원) 대비 반토막 줄어 4조6860억 원을 기록했다. 발행은 크게 감소했지만, 회사채에 대한 전반적 투자심리를 나타내는 크레딧스프레드는 오히려 벌어졌다. 회사채 AA-3년물 크레딧 스프레드는 9월 77bp에서 지난달 82bp로 늘었다.

정희인 기자 hihello@

금융당국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주가조작 걸려도 ‘숨방망이 처벌’

자본시장의 公敵 ●갈길 먼 불공정거래와의 전쟁

주가조작은 시장의 신뢰도를 흔들고 선량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지금처럼 주가조작이 하루가 멀다고 터진다면, 기업의 정상적 투자행위와 자금유지를 방해하는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한국의 처벌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본지 취재결과, 2020~2021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1.46%에 그쳤다. 절반 가까이 실형을 면한 셈이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 영역이 이전보다 커졌음에도 해당 조직

**불공정거래 실행 선고 51% 불과
금융당국 검사대상 기관 확대 속
조사인력 태부족 ‘업무과중’ 심각**

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맡고 있는 자본시장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 총 38명 중 6명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된 상태다. 금감원 특사경도 남부지검에 4명을 파견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전쟁에 불법 시세조종 및 불법 공매도 건

등 조사에 ‘울인’을 하면서 수사 공조를 위해 파견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조사과에서 계획했던 조사 일정은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졌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당이익 최대 2배 과징금’ 부과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량도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가 부당이득 산정 인과성 규명 작업도 맡게 된 셈으로 금융위 내부에선 “변동성이 큰 주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이 쉽지는 않다”며 다가올 업무 과중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감원의 전

문심의위원 및 직원 현원은 2056명이다. 정원(2190명)보다 134명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금감원이 담당하는 검사대상 기관은 늘고 있다. 증권·선물사, 운용사, 자산사, 신탁사를 포함하는 금융투자 검사대상 기관은 올해 6월 말 기준 총 3739개로, 지난해 말 3664개 대비 75개가 늘었다. 이중 검사 대상 금융투자사는 2012년 말 328개사에서 지난해 말 893개로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검사인력은 90명에서 111명으로 소폭 늘어났는데 그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제 논의가 시작된 상태”라며 “(인력 및 조직 확대) 문제에 대해 확대 방향으로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 53호 흥천시동 하나어린이집 (23년 9월말 기준 78개소 건립완료)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확실한 성과, 철저한 보상”… 정용진, 다시 “쇄신” 강조

장기적 우수인재 확보·육성에
정확한 인사 시스템 구축 주문
“경기·상황 따른 상대평가 가능한
객관적·정교한 평가지표 필요”



“철저하게 성과에 기반한 인사·보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용진<사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그룹의 컨트롤타워 격인 ‘경영전략실’ 전략회의를 잇달아 소집하고 경영 혁신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세계그룹은 정 부회장이 지난달 28일 경영전략실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현행 인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전략실을 경영전략실로 개편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달 20일 첫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조직·시스템·업무처리 방식까지 다 바꿀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그룹 오너이

자 최고경영자가 경영전략실 회의를 잇달아 주재, 1주일여 만에 또 쇄신 메시지를 낸 것이다. 이는 경영전략실과 신세계그룹의 변화와 혁신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은 이번 전략회의에서 “경영전략실 역할 중 특히 인재 확보를 포함한 인사는 각 그룹 계열사 성패를 좌우할 정도의 큰 영향력이 있다”며 “더욱 신중하면 서도 정확한 인사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모든 인사와 보상은 철저하게 성과에 기반해야 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지표도 구성원 모두가 수긍하고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한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KPI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정교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면서 “단순히 지난해와 비교해 성장했는지 감소했는지 따지는 수준을 넘어 거시경제적 추세와 해당 산업군의 융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사업 매출이 지난해 대비 5% 신장했지만 해당 산업군 내 경쟁사들이 평균 20% 신장했다면 과연 이것을 잘했다고 평가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역성장을 했더라도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업계 침체 속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면 성과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평가 시스템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계열사별, 각 업무영역별로 정밀한 KPI를 수립해 성과를 낸 조직과 임직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뒷받침해 주고,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우수인재를 육성하거나 영입할 수 있고, 이러한 우수인재의 확보 여부는 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는 게 정 부회장의 생각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경영전략실은 정 부회장의 주문에 따라 객관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KPI 마련과 이에 따른 성과 보상 역시 예측 가능하도록 그룹 전반의 인사 시스템 정교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CU·GS25 ‘오너가’ 등판… 1위다툼 2차전 ‘신사업’

GS리테일 부사장에 4세 허서홍
CU, 2세 홍정국 부회장으로 승진
해외진출 역량·생존전략 맞대결

편의점업계 투톱인 GS25와 CU의 ‘1위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양사 오너일가의 후계자가 경영 전면에 배치되면서 자존심을 건 ‘신사업’ 승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그룹 오너 4세 허서홍(주)GS 미래사업팀장 부사장이 최근 그룹 임원인사에서 GS리테일 경영전략SU(Service Unit)장으로 전격 이동,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의 지휘봉을 잡았다.

직급은 현재와 동일한 부사장으로, GS리테일의 경영지원본부와 전략부문, 신사업부문 등의 조직을 모두 통솔한다.

GS그룹 3세인 허광수 삼양인터네셔널 회장의 장남인 허 부사장은 1977년생으로,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후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획득했다. 이후 2012년 GS에너지에 입사, 2016년 같은 회사 전력·집단에너지부문장 상무, 2019년 경영지원본부장 전무로 승진했다. 2020년 GS 미래사업팀장(전무)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해 연말 인사에서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허 부회장은 앞서 GS 미래사업팀에



홍정국 BGF리테일 부회장



허서홍 GS리테일 경영전략SU장

서남다른 신사업 추진 의지와 투자전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GS리테일 인사도 신사업 추진에 방점을 둔 만큼, 앞서 그가 GS에서 보여준 신사업 추진력을 이번에도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GS그룹 관계자는 “GS리테일은 온·오프라인의 거대 커머스 기업들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허 부사장을 통해 GS리테일이 보다 빠르게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GF리테일도 오너 2세인 홍정국 BGF 대표이사 사장을 최근 임원인사에서 BGF 대표이사 부회장 겸 BGF리테일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창업주인 홍석조 BGF그룹 회장의 장남인 그는 1982년생으로, 2013년 BGF그룹에 입사한 뒤 전략기획본부장·경영전략부문장을 역임했다. 2017년 BGF리테일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19년 BGF 대표이사에 올랐다. 이

후 2020년 BGF 사장으로 승진했고, 3년 만에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홍 부회장은 그동안 그룹 전반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편의점 CU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번에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동안 업무에 더해 주력 계열사에 대한 책임 경영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사 오너 일가가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편의점 업계 1위’ 타이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편의점 GS25와 CU는 매출과 점포수를 두고 경쟁 구도를 이어왔다. 현재 국내 점포수는 CU가 앞서고 있다. 작년말 기준 점포수는 CU가 1만6787개로 GS25(1만6448개)를 339개 앞선다.

반면 매출로 따지면, GS25가 CU를 앞서고 있다. GS리테일의 편의점 부분의 3분기 매출은 2조2209억 원으로 BGF리테일의 매출(2조2068억 원)보다 141억 원 많다. 다만 영업이익은 BGF리테일이 GS25(780억 원)보다 90억 원 앞선 상황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국내 편의점 수 포화로, 양사 모두 신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오너일가를 경영 전면 배치해 책임경영에 힘을 주는 동시에 디지털 혁신과 신사업 등에 서 강한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유연 기자 kyy0907@



이마트 1호점서 ‘30주년 행사’

1993년 이마트 1호점 창동점 개점 이후, 창립 30주년을 맞은 이마트가 2주간 ‘30주년 창립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는 1일부터 14일까지 신선, 가공, 일상 용품 등 주요 생필품들을 최대 50% 할인한다고 30일 밝혔다. 금·토·일요일 동안 반값 러시아산 대게부터 토·일 딸기 56% 할인, 금요일 단하루 치킨 특가 행사를 준비했다.

사진제공 이마트

SK스퀘어, 11번가 콜옵션 포기 큐텐·알리 등 인수 가능성 ‘술술’

11번가 적정가격 매각 여부가 관건
인수의사 큰 큐텐 이어 알리도 눈독

이커머스기업 11번가의 최대주주 SK스퀘어가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매각 행배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과 새마을금고 등 재무적 투자자(FI)의 손에 11번가의 운명에 달린 가운데 유력 매각 협상자였던 큐텐을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아마존 등의 인수 가능 시나리오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다.

30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SK스퀘어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 11번가에 대한 콜옵션 포기 의결했다. 콜옵션은 옵션거래에서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SK스퀘어의 콜옵션 포기로 11번가의 FI는 12월 중순부터 동반매도 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할 수 있다. FI가 SK스퀘어의 11번가 보유 지분 80.3%까지 묶어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관건은 11번가가 적정 가격에 매각될지 여부다. FI는 투자금 5000억 원을 회수해야 하는데, 11번가의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5년 전 SK스퀘어가 투자받을 당시 11번가의 기업 가치는 2조7000억 원이었으나, 현재 시장 추정가는 약 1조 원 수

준이다. 혈값 매각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업계는 11번가를 탐내는 기업은 큐텐, 알리바바그룹, 아마존 등을 꼽는다. 특히 최근까지 매각 협상을 벌였던 싱가포르 이커머스업체 큐텐과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SK스퀘어가 큐텐에 협상 중단을 통보했는데, 큐텐은 여전히 11번가 인수의사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큐텐이 물류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거래량 확대를 위해 국내 플랫폼 인수에 적극적이란 관측이다.

알리바바그룹도 인수 후보로 거론된다. 알리바바그룹의 직구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한국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알리 앱 한국인 사용자는 전년 동월(297만 명) 대비 106% 급증한 613만 명으로 조사됐다. 알리는 올 10월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이 입점한 국내 브랜드 전문관인 ‘K베뉴’도 만들었다.

11번가와 2020년부터 협업해온 아마존도 인수 후보로 거론되나, 업계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협상을 벌였던 큐텐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나, 최근 국내에서 약진하고 있는 알리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식품기술대상 특별상에 hy ‘스트레스케어 씬’

hy의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빠른 흡수·장 건강 증진·긴장완화

hy는 마시는 프로바이오틱스 ‘스트레스케어 씬<사진>’이 최근 ‘2023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 특별상(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식품기술대상은 식품산업발전에 적극적으로 헌신한 유공자와 우수업체에 수여되는 상이다. 한국식품연구원 주최로 제품의 기술성과 맛 등 전체적인 품질을 총 3단계에 걸쳐 평가한다. 스트레스케어 씬

을 포함 총 13개 제품이 수상 대상에 포함됐다.

스트레스케어 씬은 hy가 멘탈 웰스케어 시장 공략을 위해 1월 선보인 제품이다. 베스트셀러 ‘헬리코박터 프로펙트 워’, ‘간건강 간피로케어 쿠파스’, ‘장 집중케어 MPRO4’를 잇는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다.

주원료는 특허 프로바이오틱스와 테아닌(L-테아닌, L-Theanine)이다. 국내 액상형 제품 최초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테아닌을 함께 함유했다. 액상형으



로 흡수가 빠르며 장 건강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hy는 8월에는 후속 제품 ‘수면케어 씬’을 선보이며 ‘씬’ 라인업을 2종으로 확대했다. 수면케어 씬은 특허 프로바이오틱스와 수면 관련 개별 인정형 소재 ‘아쉬아간다 추출물’을 담았다.

양준호 hy 중앙연구소 연구기획팀장은 “식품기술대상 특별상 수상으로 멘탈 웰스케어 제품 ‘씬’의 제품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냐



대법 “의혹 제기한 보수 인사에
손해배상 책임 지울 수 없어”
의정부 지원으로 원심 파기 환송

일본 교토, 서울, 대전 등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모델을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보수 인사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조각상을 제작한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 의원(변호사)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

고 일부 승소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김 씨 부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로도 유명하다.

이날 대법원은 김 씨 부부가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2019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상 모델은 1926년 일본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 부부는 이같은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부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김 변호사가 위자료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들은 단정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이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동자상이 일본인 노동자들의 사진과 흡사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어떤 발언이 민법상 불법행위인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의견이 아닌 구체적 사실을 묵시적으로라도 적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은 “노동자상이 실제로 누구를 모델로 했는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가 없고 진위를 증거에 의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노동자상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일본인들 사진은 실제로 상

당기간 국내 교과서나 국립역사관 내 설치물에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로서 소개된 바 있었고, 이후 그 인물들이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차 교체되거나 삭제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발언들이 설혹 진실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들로서는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예술 작품에 대한 개인적·심미적 취향의 표현이나 특정 대상과 비교하는 등의 비평은 그 자체로 인신 공격에 해당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명예훼손 행위로 평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다음 ‘뉴스 검색’ 변경에… 인신협 “포털 부당 행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검토
협회 22년 만에 첫 비상총회 열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제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포털의 부당 행위”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신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상총회를 열었다. 인신협이 비상총회를 개최한 것은 2001년 협회 결성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다음은 지난달 22일 콘텐츠 제휴 언론사 기사만 노출하는 것을 검색 기본값으로 설정했다. 전체 언론사를 보려면 별도로 ‘전체’ 옵션 탭을 눌러야 한다.

현재 국내 뉴스 소비의 60% 이상은 포털을 통해 이뤄진다. 인터넷 매체 등 언론사가 다음과 네이버, 야한 포털을 통하지 않고 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인신협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것은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의준 인신협 회장은 “헌법 제21조 2항

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포털 제2사업자가 뉴스 공급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갑질”이라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카카오 검색 기본값 변경’에 따른 권리 침해와 다음 뉴스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 행위 관련 긴급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신협은 1일을 목표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 이달 8일까지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 검토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고 정당 및 국회 대응 활동 등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을 포털과 검색제휴 매체의 관계가 개선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정경민 여성경제신문 대표는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검색제휴나 스탠다드제휴 언론사들은 계약서 하나 없이 동의서만으로 계약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며 “포털이 우리 콘텐츠를 마구 가져다 쓰고 검색제휴사들을 마음대로 배제시키는 행위들을 시장지배적 회사가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계기로 단순히 포털 다음을 원상복구시키는 게 아니라 포털과 언론사 사이 대등한,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판결…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방어권의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1000만 원은 합의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이 사건으로 2021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이 전 차관은 앞으로 4년간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이수진 기자 [abc123@](#)

2024
SEOUL
Skycoral

2024년 ‘서울의 색’은… 스카이 코랄

‘한강 분홍빛 하늘색’으로 물드는 서울… 매력 ‘업’

내년부터 매년 ‘서울의 색’ 선정
주요 랜드마크 조명·굿즈에 사용

오세훈 “남산타워 등 야간명소 조명”
화장품 립스틱 출시 등 기업협업도

서울시가 내년부터 ‘올해의 서울색’을 선보인다. 2024년의 색은 ‘스카이크랄(SkyCoral)’로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장소 중 하나인 ‘한강의 핑크빛 하늘’에서 추출된 색상이다. 앞으로 남산서울타워 등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와 굿즈를 통해 ‘스카이크랄’을 만나볼 수 있다.

30일 서울시는 ‘올해의 색’을 선정해 발표하는 팬톤, NCS 등과 같이 내년부터 ‘서울색’을 선정, 도시에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발표했다.

한강의 핑크빛 하늘에서 비롯된 2024 서울색 ‘스카이크랄’은 서울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으면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소통할 수 있는 색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시가 최근 시민의 일상 속 주요 관심



오세훈(왼쪽 세 번째) 서울시장과 차동석(네 번째) LG화학 사장 등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열린 ‘2024 서울색·서울빛’ 발표 행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4년 서울색은 한강의 분홍빛 하늘에서 추출한 ‘스카이크랄(SkyCoral)’이 선정됐다. 서울색은 시민들의 일상 속 관심사와 장소 등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서울의 대표 색상이며 내년 스카이크랄을 시작으로 매년 선정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사와장소를 통해 내년 서울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및 트렌드를 예측해서 도출해 낸 키워드는 ‘한강’이었다. 한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잦아든 202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시민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은 장소로 조사됐다.

특히 시민이 한강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오후 5~7시 사이로, 6·9월에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 해질녘에 볼 수 있는 ‘핑크빛 노을’의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색’ 기

자 설명회를 통해 “2008년 단청빨간색·꽃담황토색·한강은백색 등 총 10가지 ‘서울색’을 개발했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고유색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적용해 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며 “2024년 서울색은 시대적, 환경적 변화를 고려해 밝고 매력적인 색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의 색은 빛으로 남산서울타워, 롯데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야간 명소에서 조명으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해마다 선정되는 ‘서울색’은

시내 주요 랜드마크 조명과 굿즈로 활용된다. 이날 일몰 이후부터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DDP △월드컵대교 △서울시청사 △세빛섬 △서울식물원 등에서 ‘스카이크랄’ 서울빛 조명이 점등된다.

기업협업을 통해 ‘서울색’ 활용에도 나선다. 노루페인트는 염서 타입의 ‘서울 스탠다드 컬러북’을 제작하고, LG화학은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미니소반, 코스메틱 브랜드 투힐미는 서울색 립스틱 등을 출시한다.

시는 서울색을 통해 경관 개선, 굿즈 제작, 조명 연출 등 공공·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책임지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프로그램과 연계한 ‘서울색 페스티벌’을 추진해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서울이 가진 매력은 너무나 다채로워 단 하나의 색으로 표현할 수 없기에 해마다 변화하는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관심사를 담은 ‘서울색’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비 기자 [chaebi@](#)

전두광, 전두환... 관객들 분노 어디서 왔나

영화 '서울의 봄'

1979년 12·12 군사반란 배경
긴장 자아낸 '전화싸움' 불거리
심박수 측정 '분노 챌린지' 인기

캐릭터 분석 통해 파악해보니
황정민 배우 연기 주효했지만
현실 인물에 대한 분노 결합돼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전두광(황정민)을 위시한 하나회 세력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태신(정우성) 등 일부 군인들의 분투를 그리고 있다. 전두광은 전두환을, 이태신은 쿠데타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장태완을 모티브로 했다. 신파를 배제한 군더더기 없는 연출, 별다른 충격 장면 없이도 긴장감을 자아내는 '전화 싸움'이 주요 불거리다. 샷길로 빠지지 않고 쾌속 질주하는 매끈한 장르영화다.

돌출되는 장면들도 있다. 영화에는 반란군 진압을 위해 광화문 근처를 지나가는 이태신의 시점으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포착하는 장면이 나온다. 허구적 캐릭터라도 실존 인물에 영감을 받은 이태신을 구국의 영웅으로 묘사하는 듯한 연출은 아무리 생각해도 과잉이다. 이태신이 바리케이드와 철조망을 넘어 전두광에게로 향하는 장면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두 장면 모두 영화의 전체적인 결을 해치는 수준은 아니다.

캐릭터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극장을 빠져나오는 관객들의 일차적 반응으로만 재단하면, '서울의 봄'은 이태신이 아닌 전두광의 영화다. "징글징글하다", "너무 화가 난다", "속이 터진다" 등의 감정적 반응은 전두광으로부터 기인한다.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 스틸컷.

플러스스엠

이 영화의 관람 후기를 심박수로 측정해 SNS에 올리는 '분노 챌린지'는 하나의 놀이가 됐다. 그러므로 전두광에 관한 캐릭터 분석은 '서울의 봄'을 파악하는 흥미로운 방법 중 하나다.

전두광에게 쏘이는 대중의 날 선 반응은 실제 역사와 직결되는 혐오적 감정과 결부돼 있다. 황정민의 연기도 주효했지만, 1980년 5월 18일의 광주가 얼마나 무참했는지 아는 관객들은 스크린 바깥의 분노를 극장 안으로 가져와 전두광에게 투사한다. 그러니까 전두광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나쁜 인간'으로 상정돼 있다. 사람들은 전두광(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극장에 간다.

그렇다면 전두광은 악인 캐릭터로서의 매력에 충분하냐. 한국 현대사의 맥락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전두광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들이

분노가 치밀까. 배우는 캐릭터에 숨을 불어넣는 존재다. 하지만 특정 캐릭터가 영화의 내적 논리에 따라 그 자체로 생동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배우의 연기(혹은 이미지)에 기대거나 스크린 바깥의 요인들에 의해 지배당한다면 좋은 캐릭터라고 말하기 저어지는 측면이 있다.

전두광은 영화적 분노와 현실적 분노가 결합한 캐릭터다. 역사적 맥락을 다 견어내고 봐도 전두광은 악한이다. 이렇진대 참담한 현대사의 비극을 조래한 인물을 영화로 가져올 때, 현실과 영화를 분리해서 보기란 쉽지 않다. 다만 스크린 바깥의 요인들이 스크린 안의 캐릭터를 과도하게 지배하는 듯한 느낌엔 물음표를 제기하고 싶다. 이는 극악한 연쇄살인마를 미남 배우가 연기할 때, 악함이 무화되는 불편한 감정과 맥이 닿아있다.

물론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쿠데타 성공 직후, 영화는 고문당하는 이태신

의 모습과 화장실에서 기괴하게 웃는 전두광의 모습을 교대로 보여준다. 악랄한 전두광의 웃음은 관객들의 분노를 치밀게 하고, 심박수를 높였을 것이다. 이는 일말의 반성과 사죄 없이 떠난 '그 사람'에 대한 현실적 분노와 연결돼 있다. 그런 점에서 영화는 현실의 연장이자 반영이다. 이것이 영화의 힘이기도 하다.

요컨대 악인의 행위에도 나름의 사정이 필요하다. '서울의 봄'에는 이 같은 사정이 괄호로 묶여 있다. 권력에 취한 전두광이 군사 반란까지 감행하는 명분을 영화는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당연히 역사적으로 12·12 쿠데타에는 아무런 명분도, 당위도 없다. 하지만 그것을 극화해 영화로 표현하는 건 다른 문제다. 캐릭터 역시 마찬가지다.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인간이었지만, 전두광도 그렇다는 것은 영화적으로 설득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송석주 기자 ssp@

지역민 참여 영화 해외 영화제 진출

문체부 '지역문화 촉진 사업' 성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전국 1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지역문화 활력 촉진 지원 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지역 소재 웹드라마가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제작 성과가 두드러졌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수도권보다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제작으로 지역 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됐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17개 지역을 선정해 전문가 현장 상담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했다. 1곳당 사업비 최대 13억 원(국비·지방비 각 50%)을 투입했다.

영덕군은 주민이 직접 배우로 출연한 지역 소재 웹드라마 '우리 마을 식당'으로 유럽 최초 웹영화제인 프랑스 마르세유 웹페스트 2023(MARSEILLE WEB FEST) 본선에 진출했다.

이 밖에도 스페인, 이탈리아, 콜롬비아 등 해외영화제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장수군은 늦여름 산골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섶밭들 산골마을 영화제'를 열었다. 야외상영장 등 4개 장소에서 총 37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지역민들이 영화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병재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국 곳곳이 문화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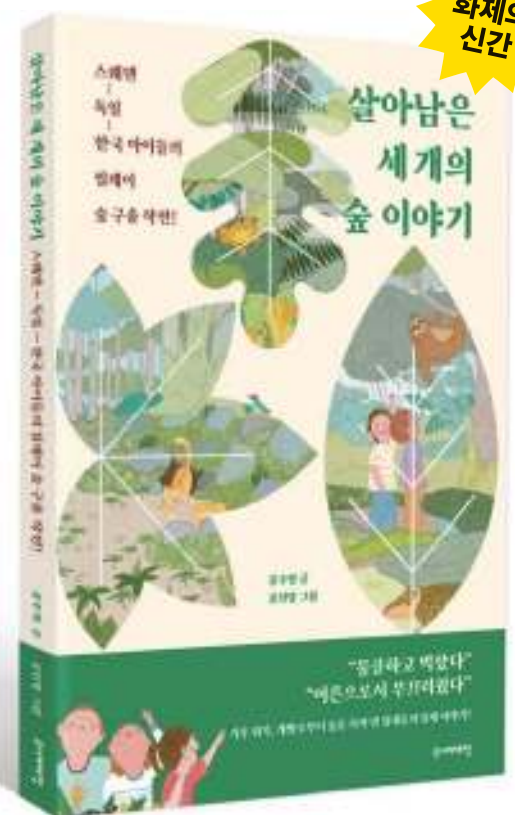
환경 파괴, 개발로부터 숲을 구한 스웨덴-독일-한국 십대들의 실제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탄탄하고 흥미롭게 쓰인 청소년 환경 논픽션!

- * 스웨덴 십대들이 구한 코스타리카의 '영원한 어린이의 숲'
- * 독일의 아홉 살 소년 펠릭스 핑크바이너에서 시작된 '나무 1조 그루 심기 운동'
- * 원시림 '곶자왓' 개발을 막은 제주의 아이들

- ♣ "세 편 모두 실화란 점이 어른으로서 부끄럽게 한다." — 신경준(송문중학교 환경교사, 환경교사모임 공동대표, EBS중학 환경 강사)
- ♣ "어른들은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은데 아이들은 일단 해 본다. 지구가 계속 숨 쉬는 건 이런 사람들 덕분이다." — 이용규(선홍초등학교 교사)
- ♣ "걱정, 불평만 늘어놓지 말고 책의 주인공들처럼 나무를 심고 숲을 지키자! 책을 읽는 내내 물갈하고 벅찼다."
— 안도연(안산초등학교 교사,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 회원)
- ♣ "동물, 숲, 강, 바다, 지구를 지키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이 지역, 나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 책은 그 거대한 흐름을 보여 주고 있다." — 문용포(곶자왓작은학교 대표교사)

살아남은 세 개의 숲 이야기 글 공주영 | 그림 공인영 | 184쪽 | 14,000원 | 주니어태학



글 읽는 소리 초가 너머... 역사 숨쉬는 고택이 한눈에

양반·글소리·돌 많은 '三多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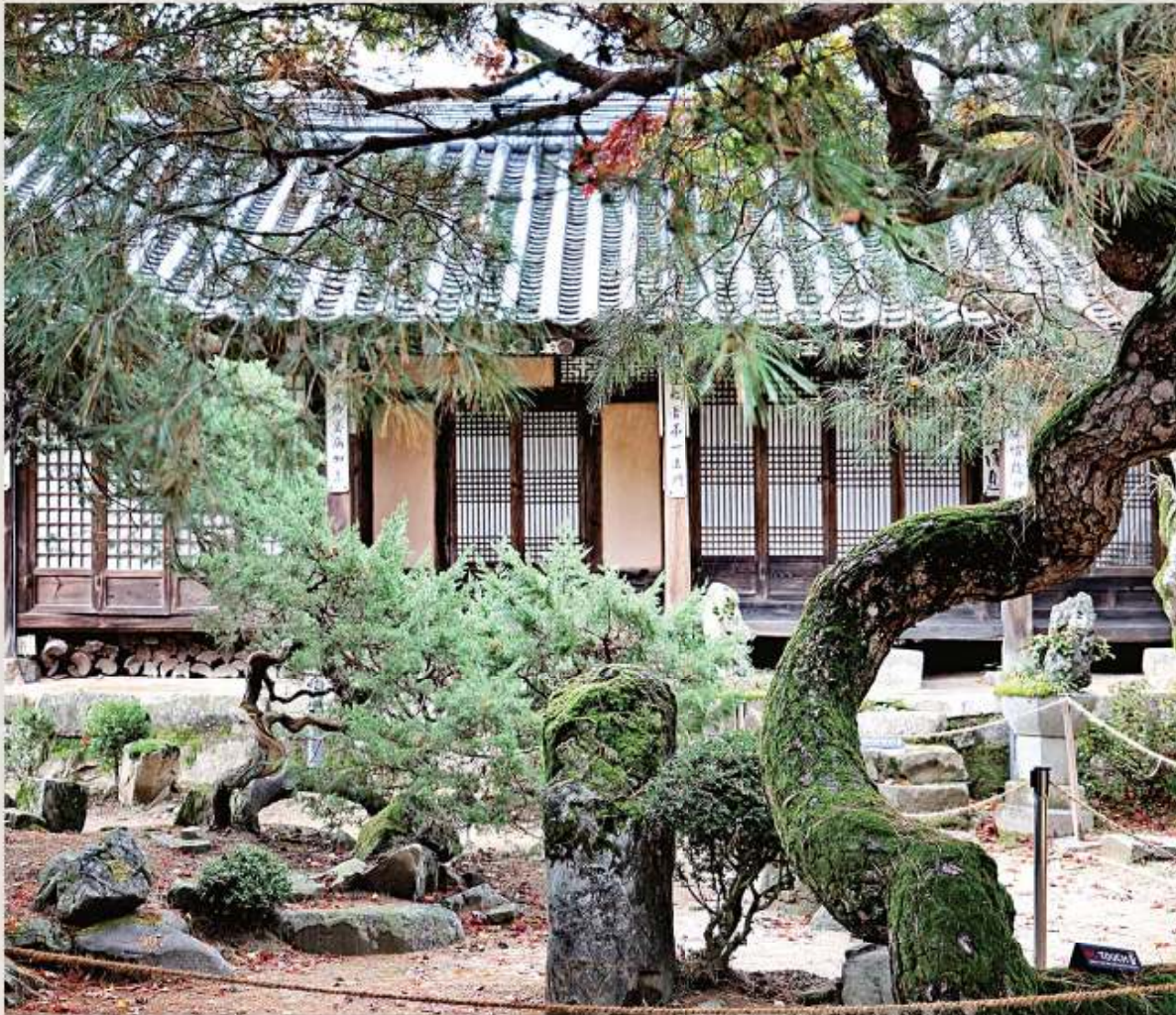
외암민속마을은 충남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자락에 있는 옛날 마을이다. 일부러 꾸며 만든 눈요기용 민속 마을이 아니다. 단장이야 좀 했지만 겉치레에 흐르지 않았다. 이곳은 500년간 이어진 '예안 이씨' 집성촌이다. 지금도 일부 후손들이 산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즐비해 이색적이며, 하나같이 묵은 시간의 잔영이 더께로 쌓여 고색장연한 마을이다.

마을 길은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일 없이 거둬 휘어져 나직한 선을처럼 포근하다. 느린 걸음으로 걷기에 좋은 골목길이다. 발길이 느려지면 풍경이 한결 세밀해져 살갑게 다가온다. 첫눈에 정겨운 건 돌담길이다. 집과 집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마을 사이사이로 흘러가는 돌담길 길이는 자그마치 5.3km에 이른다. 외암마을의 시그니처 구조물이라 할 만하다. 예로부터 외암은 '삼다(三多) 마을'로 통했다. 양반이 많고, 양반들의 글 읽는 소리가 흔하며, 돌이 유독 많다는 건데, 땅을 파면 운통 돌투성이 지질이란단다. 따라서 돌담은 자연스러운 귀결로 등장했다. 이는 어쩌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창작한 환경미술에 가깝다. 그 이미지는 수더분하나 아름다우며, 기법은 소박하지만 능란한 것이니까. 돌담길은 미로처럼 얽혀 퍼져나간다. 길 끝이란 없다. 끝길 듯하다가도 다시 이어진다.

신창덕에서 객을 싣고 시동을 건 돌담길은 온 마을을 감고 휘돌며 덩실한 양반 고택들과 조출한 초가들을 차례로 보여준다. 주요 반가(班家)들은 대체로 마을 안길 북쪽에 있다. 이곳은 일반 민가들이 들어앉은 남쪽보다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다. 그레 마을을 보듬은 설화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류의 범람을 피할 수 있다. 즉 주거 여건이 좋은 심층부다. 종가, 사당, 송화대, 참판댁 등 상류층 가옥들이 주로 여기에 산재한다. 개중 핵심은 건재(建齋) 이상익(1848~1897)이 1869년에 지은 건재고택이다.

건재고택은 우람하면서도 정교한 구조를 지닌 집이다. 뚝 떨어진 행랑채 중앙에 자리한 솟을대문으로 들어서면 마당과 사랑채가 있고, 그 뒤편에 정갈하고 수려한 구색으로 돋보이는 안채가 있다. 건재고택이 유명한 건 사랑채 앞마당에 조성한 정원 때문이다. 조선의 옛집들을 보면 크거나 작거나 사랑채 마당을 거의 여백으로 남겨둔 걸 알 수 있다.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 아산 외암민속마을



충청남도 아산시 외암 민속마을의 건재 이상익 건재고택 전경.

그런데 건재고택의 사랑채 마당엔 수목이 빼곡하다. 웅트람처럼 절묘하게 비틀린 채 생동하는 노송을 비롯해 갖가지 정원수를 보라. 화려한 정원이다. 괴석과 석조 장식품에 정자까지 다양한 조경 요소를 조밀하게 배치하기도 했다. 당최 여백이 없어 답답한 기분을 불러일으킨다. 허공으로 펼쳐진 나무들의 가지로 인해 한낮에도 어둑하다.

전통 범례를 초월한 이 정원의 이질성은 오히려 묘한 미감을 자아내기도 한다. 미태의 레이스를 펼쳐는 나무들의 모습에 무슨 결합이 있나라. 뭔가 웅송깊은 맛을 자아내는 이곳에서 신령스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이 정원을 전문가들은 대체로 일본식 조경 방법을 따른 것으로 본다. 조선식과 일본식이 혼합된 공간으로 보기도 한다.

건재고택에선 추사 김정희를 살짝 만날 수 있어 매력을 더한다. 추사체로 쓴 현판과 주련 다수가 걸려 있어 문기(文氣)가 풍긴다. 이 집은 추사의 두번째 부인 예안

500년 이어진 '예안 이씨' 집성촌
조출한 민가와 상류층 가옥 공존

김정희 손길 묻은 이상익 건재고택
수목 조밀한 사랑채 마당도 볼거리

맹사성의 맹씨행단, 풍파 많았지만
보존 가장 잘된 '고려말 민간주택'



아산 맹씨행단(맹사성 고택) 전경.

이씨의 친정이다. 이런 인연으로 추사가 글씨를 남겼다. 낙관이 박힌 추사의 친필은 5점 정도로 파악된다. 건재고택엔 오랫동안 빗장이 걸려 있었다. 개인 소유였던 데다 소유권 소송 문제 등이 겹쳐 문을 닫아뒀던 것. 그러다가 2019년 아산시가 인수한 이후 요즘은 하루 두 차례 일정한 시간에 개방한다.

맹사성 고택은 최고(最古) 민간 주택
건재고택 뒤편 저만치엔 참판댁이 있다. 건재고택과 함께 외암리를 대표하는 집이다. 현재 종손 일가가 산다. 여느 빈집과 달리 사람의 온기로 숨을 쉬는 집이다. 규모로나 구조로나 완전한 대갓집이다. 참판 벼슬을 지낸 퇴호 이정렬(1868~1950)의 고택으로 고종이 하사한 집이다. 고종이 왜? 이정렬은 똑 부러지는 기개로 할 말 다하며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일제의 침략 야욕 저지를 탄원하는 상소를 거듭 올렸다. 하나 반응이 없었다. 그러자 이정렬은 말 등에 거꾸로 올라

타고 대궐에 들어가는 진기한 시위를 했다. 조회를 주관하던 고종이 경악할 수밖에. 이 통렬한 장면에 대해 황성신문은 이렇게 썼다. '아침 햇살에 봉황이 울었다.' 이정렬은 종단엔 '나라 망하는 꼴은 차마 못 보겠다'며 벼슬을 던지고 낙향했다. 이후의 생활은 매우 곤궁했다지. 그걸 안 고종이 먹고살 만한 재산을 보냈으나 세 차례나 사양하며 돌려보냈고, 이번엔 고종이 낙선재의 축소판쯤 되는 집을 지어줬는데 그게 지금의 참판댁이다. 이 집의 처마엔 금색으로 '퇴호거사'라 쓴 현판이 걸려 있다. 퇴호는 고종이 이정렬에게 내린 별호다. 현판은 고종의 아들 영왕이 9세 때 썼다. 이정렬의 못 말할 결기와 고종의 대범한 품모가 겹으로 환히 비치는 역사의 한 장면이다.

발길은 이제 설화산 너머 배방읍 중리에 있는 맹씨행단(孟氏杏壇)에 닿는다. 조선의 명재상이자 청백리의 표상인 고불(古佛)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의 고택이 있는 곳이다. 이 집의 주인은 본래 고려말의 무신 최영 장군이었다. 한편 맹사성은 최영의 손녀사위였다. 이런 연고로 최영이 맹사성에게 집을 물려줬다. 집의 형상은 그지없이 조촐하다. 세월의 풍상을 겪으며 으스스한 게 많은 집이기도 하다. 덩달아 보수와 변형도 잦았다. 엄밀한 분석을 할 경우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복화반 정도가 이 옛집에 남은 원 구조물이라고 한다. 그렇더라도 고려말에 지어진 집이라는 사실엔 하자가 없다. 우리나라에 남은 최고(最古)의 민간 주택으로 간주되는 집이다.

맹사성은 황희와 함께 세종조의 황금기를 쌍두마차처럼 이끌었던 주역이다. 정치인다운 기량은 물론 청렴결백으로 당대의 사표가 된 인물이다. 그의 말년 생활은 소박해, 이를테면 집에서 기르던 소를 타고 돌아다니는 정도에서 자족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해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았다. 허름한 이가 방문할 때에도 반드시 예를 갖추어 맞이했다. 매사 목에 힘을 주는 법이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곱결한 인품이 흔하던가? 저마다 꿈꿨던 것과 내숭을 장착하고 각축을 일삼는 게 속세다. 맹사성의 성정은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고 한다. 그의 온유한 정신은 세상의 어둠을 감쌀 수 있는 치마폭 같은 것이었다.

글/박원식 객원기자 tititoto@hanmail.net
사진/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통·최신문화 적극 수용해야 젊은 세대 유입 늘 것”

인터뷰 정종호 온양문화원 원장

아산시는 1995년 1월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근래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형 산업체들이 입주하면서 지역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문화를 향유하는 인구도 늘어났다. “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이 많아졌다. 책임감도 느낀다.” 이는 정종호 온양문화원 원장의 얘기다.

“아산시 인구가 38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았다. 아산에서 출생한 2세대도 많은데, 그들은 아산의 미래를 짊어질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 문화원은 아동이나 청소년은 물론 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반응은 매우 좋다. ‘전통놀이와 내 고장 알기’ 같은 프로그램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문화의 위력에 놀려 퇴색하기 쉬운 게 전통문화다. ‘현대적인 문화를 즐기는 경향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의 옛것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문화재 탐사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하고 있다. 이 역시 참여도가 높다.”

“요즘 아산시에서 부각된 문화 이슈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온천 문화의 보고인 ‘온양행궁’의 복원 문제를 짚을 수 있다. 이는 아산 시민의 숙원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재원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온양문화원이 추진한 중점 사업과 성과엔 어떤 게 있나. “신정호수공원을 신정호 아트밸리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 최고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문화에 술과 생태가 어우러진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온양문화원은 ‘락페스티벌 달그락’을 주관하기도 한다. 지난 8월에 열린 행사엔 노브레인, 육중완밴드, 크라이닝 등 21개 팀이

참가해 열띤 공연을 펼치며 성황을 이뤘다.”

“요즘은 문화원마다 전통문화 보존 활동에서 나아가한 결 트렌디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문화원이라 하면 흔히 옛날 문화를 축으로 삼아 활동하는 걸로 오해한다. 사실 문화원은 이미 변화했으며, 변신에 더욱 가속을 붙이고 있다. 현대 문화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온양문화원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다수 개발했다. 타 문화원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잦다.”

‘지역 문화유산 순례기’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다양한 지역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지역N문화는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역문화원이 함께 발굴한 다양한 지역 이야기를 서비스하는 지역문화포털입니다. 기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지역N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 제2023-552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
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
고용노동부 장관

1. 2024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16만 5천명으로 결정
〈'23년 E-9 외국인력 도입인원 배분〉 (단위: 명)

합 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165,000	95,000	5,000	16,000	10,000	6,000	13,000	20,000

- ※ 탄력배정분 : 업종 구분 없이 연내 업종별 인력수요에 따라 탄력 배분
※ 제조업 : 광업 포함, 농축산업 : 임업 포함, 서비스업 : 음식점업 포함
※ 도입규모 소진 현황에 따라 소진 업종에 탄력배정분을 신속히 배정·활용하고, 필요시
업종 간 배분인원을 조정하여 운영
※ 신규·재입국 인원을 포함한 수치임
- '24.1월 중 신규 입국자 대상 신청접수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
○ 방문취업 동포(H-2)의 총 체류인원은 25만명('23년과 동일)
※ 방문취업 동포(H-2)는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며, 업종별 규모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2. 고용허가제 신규 업·직종 허용

■ 음식점업

- ❶한식업 중 ❷주요 지역 내 ❸일정 업력(業歷) 이상 업체의 ❹주방 보조원 직종에
비전문화업(E-9) 신규 도입

- ❶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561) 중 '한식 음식점업'(5611)
-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영업 신고증으로 확인
- 위탁업체 또는 가맹점인 경우 위탁계약서·가맹계약서로 확인 추가
❷ (지역) 주요 100개 지역 대상 시범 도입 (불임 참조)
❸ (업력) i)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업력이 5년 이상인 경우 또는
ii)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업체는 업력이 7년 이상인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 보조원'(95220)

- ※ (시행시기) '24년 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4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

■ 임업

- ❶임업 사업자 중 ❷산림사업시행법인, ❸종묘생산법인,의 ❹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에
비전문화업(E-9), 방문취업(H-2) 신규 도입

- ❶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
(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❷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❷ (산림사업시행법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
사업시행법인' 중 법인사업자
■ (산림사업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❷ 사업자등록증 및 산림사업법인 등록증으로 확인
■ (국유림영림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
영림단' 중 법인사업자 ❸ 사업자등록증 및 국유림영림단 등록증으로 확인
■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 제2조제2·3·4호에 따른 '산림조합, 산림
조합중앙회' ❷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원목생산업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자' 중 법인사업자 ❷ 사업자등록증 및 목재생산업 등록증
으로 확인
❸ (종묘생산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사업자 ❷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❹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단, 방문취업
(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광업

- ❶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❷광업 단순종사원 직종에
비전문화업(E-9) 신규 도입

- ❶ (세부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❷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 ※ (시행시기) '24년 3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7월 경) 시부터 적용 추진

3. 기타 사항

- 금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제40차)에서 의결하지 않은 사항은 제1차~제39차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계속 시행

4.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s://www.eps.go.kr)

2024년 일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구 분	일반고용허가제(E-9)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 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염업 채취업(07220)
임업	-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 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고용에 한함
광업	- 금속 광업(06), 비금속광물 광업(07) ※ 위 업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 또는 '조광권'이 설정된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 고용에 한함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한식 음식점업(5611) ※ 음식점업 외국인력 허용 시범 지역에 소재한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중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또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중 7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고용에 한함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서비스업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 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

음식점업(한식) 외국인력(E-9) 허용 시범 지역		
광 역		기 초
특별시	서울(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16)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광역시	대구(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10)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5)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도	경기(3)	수원, 성남, 고양
	충북(3)	청주, 충주, 제천
	충남(3)	천안, 아산, 서산
	전북(3)	전주, 군산, 익산
	전남(3)	여수, 순천, 목포
	경북(3)	포항, 구미, 경주
	경남(3)	창원, 김해, 진주
특별자치시	세종(1)	-
특별자치도	강원(3)	원주, 춘천, 강릉
	제주(1)	-

2024년 방문취업동포(H-2) 고용허용 업종

1.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구 분	특례고용허가제(H-2)
제조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
건설업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 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농축산업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어업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천일염 생산 및 염업 채취업(07220)
임업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위 업종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 사업시행업자' 중 법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 중 법인에 한함

- ※ 단,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 및 '임업'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2. 광업, 서비스업(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

H-2 허용제외의 업종		
코드	업종명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70 연구개발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1 전문 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0	수상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정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 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서비스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E, G-U (서비스업 분류고시(통계청고시
제2018-390호, '18.9.21)에 따름)
※ 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업종의 허용 제외는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 산업 중분류 단위에서 허용제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업종은 허용

- 육상여객 운송업(492)
※ 냉장·냉동 창고업(52102)
※ 내륙에 위치한 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 운송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택배업(49401), 물류터미널 운영업(52913)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
※ 단, '택배업'(49401) 및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의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시행

2024년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 광업 및 제조업(조선업 포함)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1명 이상 10명 이하		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11명 이상 50명 이하	30명 (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51명 이상 100명 이하		35명
101명 이상 150명 이하		40명
151명 이상 200명 이하		50명
201명 이상 300명 이하		60명
301명 이상		80명

-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3개월 평균)이 1명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뿌리산업(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하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은 총 고용허용
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한도
15억원 미만	10명 (계수 미적용)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 0.8

- ※ 공사금액 1억원당 0.8명 (소수점 이하는 내림)

■ 서비스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한도	
	일반	택배
5명 이하	4명	1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8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3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42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60명
101명 이상	25명	75명

- ※ 개인 간병인, 가구 내 고용활동은 가구당 1명으로 한정
※ 음식점업은 세부 업종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특별 외국인 근로자(H-2)의
고용허용 인원 상이
- (E-9)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경우 1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2명
까지 고용 가능 <한식 음식점 한정>
- (H-2) 상기 표 기준에 따르면, 내국인 피보험자수 6~10명인 경우 8명까지 고용 가능
※ 택배분야 허용업종은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

■ 농림축산업

업 종	구 모	영농규모별 (단위 : ㎡)				
작 물 재배업 (011)	시설원예-특작	4,000~6,499	6,500~11,499	11,500~16,499	16,500~21,499	21,500 이상
	시설버섯	1,000~1,699	1,700~3,099	3,100~4,499	4,500~5,899	5,900 이상
	과 수	20,000~39,999	40,000~79,999	80,000~119,999	120,000~159,999	160,000 이상
	인삼, 일반채소	16,000~29,999	30,000~49,999	50,000~69,999	70,000~89,999	90,000 이상
	콩·나물-종묘재배	200~349	350~649	650~949	950~1,249	1,250 이상
축산업 (012)	가타원예-특작	12,000~19,499	19,500~34,499	34,500~49,499	49,500~64,499	64,500 이상
	젖 소	1,400~2,399	2,400~4,399	4,400~6,399	6,400~8,399	8,400 이상
	한우	3,000~4,999	5,000~8,999	9,000~12,999	13,000~16,999	17,000 이상
	돼 지	1,000~1,999	2,000~3,999	4,000~5,999	6,000~7,999	8,000 이상
	말·염소	250~499	500~999	1,000~1,499	1,500~1,999	2,000 이상
	양계	2,000~3,499	3,500~6,499	6,500~9,499	9,500~12,499	12,500 이상
	양봉	100~199군	200~299군	300~399군	400~999군	1,000군 이상
	가타축산	700~1,699	1,700~3,699	3,700~5,699	5,700~7,699	7,700 이상
작물 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0명	-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0명 이상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11~5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51~10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 100명 이상	-	
고용한도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 ※ 영농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로
확인함
- 고용허가 허용업종 중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닌 법인인 경우,
「축산업」에 따른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방법으로 영농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법인은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기준 준용
※ 젖소 900-1,4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한우 1,500-3,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2,000~4,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작물재배업은 재배면적, 축산업은 축사면적(부화장과 방사면적 포함) 기준임
※ 버섯이나 양계(산란계, 부화장) 등과 같이 여러 층으로 재배·사용하는 경우 각 층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함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장별 상시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양계 1,000~2,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의 경우 고용한도 8명 인정
※ 시설원예·특작 중 파프리카의 경우 고용한도 50명 인정

■ 연근해어업 : 어선수 기준

연근해 어업의 종류	고용한도
소형선망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자리돔들망어업, 근해장어통발어업, 근해문어단지어업, 근해통발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복합어업	최대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기선권원망어업, 정지망어업	최대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 초과 불가 다만, 어장막 근무자의 경우 1개 사업장당 기선권원망어업은 16명, 정지망어업은 6명
연안개망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조망어업, 잠수기어업, 구획어업	최대 7명으로 하되, 전체 어선원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양식어업 : 면적 기준

면허(허가,신고) 종 류	양식어업의 종 류	고용 한도	10명	15명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1호 (해조류양식업)	수하식양식업 바닥식양식업	면적 199,999㎡ 이하	면적 99,999㎡ 이하	200,000~ 299,999㎡ 30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2~5호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 (협동양식업)	수하식양식업 혼합식양식업 바닥식양식업 가두리식양식업 촉제식양식업	면적 19,999㎡ 이하	면적 99,999㎡ 이하	20,000~39,999㎡ 40,000㎡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1호 (육상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해수 양식업 육상촉제식양식업	면적 6,600㎡ 이하	면적 9,999㎡ 이하	6,601~8,250㎡ 8,251㎡ 이상
수산종자산업 육성법 제21조 (수산종자생산업)	육상종자생산업 해상종자생산업	면적 990㎡ 이하	면적 59,999㎡ 이하	991~1,652㎡ 1,653㎡ 이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7호 및 제43조제1항 2호	육상양식업	면적 6,600㎡ 이하	면적 6,601~8,250㎡	8,251㎡ 이상

- ※ 육상(해수)양식업 중 수조식, 지수식 양식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종자생산업 중 육상종자생산업의 면적은 수조면적 기준임

■ 천일염 생산 및 염업 채취업

염전 면적 (단위: ㎡)	고용한도
37,000 이하	4명
37,000 초과	8명

■ (공통)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예외

○ ❶ 특별한국어시험 제도에 따라 도입되는 인력 중 출국 전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근무하는 경우(지정알선)와 ❷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특례)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이 보지 않음
※ 다만, 출국 전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에
포함

“청소년~고령층 생애주기별 금융교육 강화할 것”

김태훈 금감원 금융교육기획팀장

조기 금융교육 열풍 불면서

FSS 어린이 금융스쿨 ‘대박’

학자금·주거·금융사기 대응 등

연령대 따른 맞춤형 교육 확대

“청소년은 대리입금문제,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청년은 주거 문제, 고령층은 디지털 및 금융사기 등 금융소비자마다 필요한 금융교육이 다르다. 맞춤형 교육 확대를 위해 생애 주기별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

김태훈<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 팀장은 3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세대별 교육을 세분화해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적시에 제공한다는 게 금감원의 목표다.

금감원은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이후 ‘FSS어린이금융스쿨’, ‘대학 실용

금융’ 등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고령층을 위한 금융사랑버스, 고령층디지털 교육 등으로 세대별 금융교육을 세분화하고 있다.

조기 금융교육 열풍이 불면서 올해 ‘FSS 어린이 금융스쿨’은 소위 ‘대박’을 쳤다. 초등학교 4~6학년 대상 250명 모집에 1862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경쟁률이 무려 7대 1. 이복현 금감원장의 막내아들도 주춤에서 떨어질 정도였다.

김 팀장은 “금감원 직원들 자녀도 지원했다 떨어졌는데 그게 제 얘기”라며 “금융스쿨의 경우 우리 원 직원들이 숙제나 학업을 점검해주고 틀린 부분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는데 교육 내용이 입소문을 타면서 경쟁률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발 과정에서 지역 배분을 하는 등 공정한 선발 절차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FSS 어린이 금융스쿨은 용돈관리부터 소비 의사결정, 저축과 투자, 신용 등 ‘초등 졸업 전 꼭 알아야 할 17가지 금융지식’을 다루는 무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찾아가는 FSS 어



린이 금융스쿨’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등록,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FSS 어린이 금융스쿨과 별도로 아동양육시설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양육시설을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범 운영해왔다.

금감원이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 원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 이 원장은 올해 5월 일반인 및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FSS 금융아카데미’ 첫 강연자로 나섰다.

금감원장이 직접 참여한 사례는 처음이다. 아카데미 참여는 현장과 소통을 강조하는 이 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 팀장은 “이 원장이 당시 첫 강연자로 나서 신용 관리라든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등 위험성 묻지마 투자를 지양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특히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원장이 법률 전문가다 보니 열정적으로 조언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이 원장은 당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 뱅크런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K-금융에 대한 자신감도 심어줬다는 후문이다. 금감원은 자체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자체, 경제교육단체들과 협력하는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김 팀장은 “지자체와 경제교육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 플랫폼과 연계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법근 기자 nova@ 사진 고이관 기자 photoeran@

농협銀, 농식품기업여신 30조 달성



NH농협은행이 농식품기업여신 잔액 30조 원을 달성했다. 농협은행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농식품기업여신 잔액 30조 원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일 기념식에 참석한 이석용(가운데) 행장은 “농업·농식품기업에 대한 지원은 농협은행의 DNA이자 정체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법근 기자 nova@·사진제공 NH농협은행

국민銀,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



KB국민은행은 대한민국 장병들의 소원을 이뤄주는 ‘2023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공동 주최하는 ‘2023 장병소원성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을 사연과 함께 응모하면 소원을 이뤄주고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14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1200여 건의 다양한 사연이 접수됐다. 3단계 심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부대, 45명의 장병은 그동안 꿈꿔온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받는다.

이재영 기자 lly0403@·사진제공 KB국민은행

농진원, 동반성장 대통령표창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사진 오른쪽)은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2023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농진원은 농산업분야 유일의 기술사업화 지원 기관으로, 기술·자본·전문인력 확보 등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전후방 협력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을 인정받았다. 농진원은 매년 300개 이상의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고 1000건 이상의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진원은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사진제공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해외 부동산개발 잔걸음

나이지리아 이어 싱가포르 방문

현지 개발사 CEO와 잇단 면담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글로벌 부동산개발사업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달 13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방문을 시작으로 현지 발주처 및 정부 관계자들과 연이어 접촉했다. 이어 27일부터 28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싱가포르 국부펀드 산하 아시아 최대 부동산개발사인 케펠랜드와 캐피탈랜드의 CEO와 면담을 진행했다.

케펠랜드와 캐피탈랜드는 세계 최대국 부펀드 중 하나인 테마섹 홀딩스 산하의 국영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부동산 전문 개발사다. 테마섹 홀딩스는 싱가포르 정부가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국부펀드로 운용 자산의 규모가 한화 약 40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투자회사다.

정 회장은 림 루이스 케펠랜드 CEO와



정원주(맞은편 오른쪽 두 번째) 대우건설 회장이 27일 케펠랜드를 방문해 회사 관계자들과 협력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대우건설

리 치쿤 캐피탈랜드 CEO를 잇달아 만나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및 캐나다, 미국 등 북미지역,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우건설과 함께 부동산개발사업을 확장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사 CEO는 한국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사 사업에 대해 대우건설의 협조를 당부하며 단기적인 사업파트너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협력방안 구축을 원한다고 밝혔다.

한진리 기자 truth@

“안정적 흑연 수급 위해 민관 원팀으로 대응”

산업부, 배터리 3사 등과 점검회의 이승렬 실장 “특별한 문제 없을 것”

흑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사진>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흑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배터리 3사 및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수출통제 시행 전 흑연 추가 물량을 비롯해 그간 추가 도입 계약 등을 통해 업체별로 3~5개월분의 재고를 확보했다. 아울러 정부는 10월 20일 중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발표 이후, 산업부 1차관 주재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대응회의(10월23일), 산업부장관 주재 이차전지 공급망 강화방안 간담회(10월27일) 등



을 열었다. 또 10월 23일부터 산업부-유관기관 합동 흑연 수급대응 전담반(TF)을 가동하는 등 업계의 흑연 공급망 확보를 밀착 지원해

왔다.

흑연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 등을 위한 업계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하고 있다.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인조흑연 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신속처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탄자니아를 방문해 흑연광산 프로젝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갈륨·게르마늄 사례로 볼 때, 다소의 기간(법정시일 45일)은 걸리더라도 흑연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만일의 상황까지도 염두에 두고, 흑연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특수검역과장 안종현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 기획조정과장 손경문 △직물관리과장 전익성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김진호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장 이경일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장 서봉열

◆국토교통부 ◇전보 △홍보담당관 정천우 △건설안전과장 이상욱 △도로투자지원과장 박문수 △도로시설안전과장 이윤우 △공공택시기획과장 조성환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 김형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 김희석 △국토교통과학기술정책팀장 권유정 △공간정보진흥과장 김유진 △교통서비스정책과장 이주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김혜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건축혁신기획팀장 공경화 ◇파견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 윤성배 △대통령비서실 최아름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행정심판심의관 김기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원세연 △조사1과장 강대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장 김홍대

◆현대해상 ◇부문장 전보 △장기보험부문장 이

권도 △CPC전략부문장 이석현 △자산운용부문장 황인관 △기업보험부문장 정승진 △기획관리부문장 조운상 △자동차보험부문장 박주호 ◇본부장 전보 △브랜드전략부문장 황미은 △마케팅기획본부장 김종석 △강남지역본부장 인동인 △자산운용1본부장 안성일 △경영기획본부장 유원식 △기업마케팅본부장 박창수 △제리본부장 김경동 △AM2본부장 이기원 △커뮤니케이션본부장 박대수 △재무기획본부장 조희철 △AM마케팅본부장 김기훈 △장기손사본부장 김경중 △지방권대인보상본부장 유병국 △일반보험본부장 이재용 △호남지역본부장 김준희 △법인영업본부장 신봉인 △CISO 명지영 ◇실장 전보 △감사실장 이경만 △대체투자실장 권용관

◆한화투자증권 ◇본부장 선임 △연금본부 김일수 ◇팀장 선임 △소비자보호팀 구분관

◆삼성그룹 △삼성물산 [상사부문] ◇부사장 △이창원 ◇상무 △강성욱 권순종 배문성 신수호 [건설부문] ◇부사장 △도규 ◇상무 △김희현 변동규 여상식 예병용 이경민 이상현 전성배 진주현 [패션부문] ◇부사장 △이소란 정옥준 ◇상무 △박영미 안상욱 [리조트부문] ◇상무 △조영민 기사·삼성중공업 ◇부사장 △김경희 김진모 남궁금성 안영규 이동연 ◇상무 △김경수 백정훈 안동민 윤병협 이병선 이승훈 이호기 ◇마스터 △최두진 △삼성엔

지니어링 ◇부사장 △김대원 △김동현 △이성희 ◇상무 △김종원 △박준영 △방승권 △양승찬 △정용석 △성영웬스토리 ◇상무 승진 △윤상민 △삼성의료원 ◇상무 △강연호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윤종규 이상병 조성환 홍연진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사장 △고유상 백상현 양철보 ◇상무 △이상민

◆KT △임원 승진 ◇부사장 △이현석 안창용(이상 KT) ◇전무 △김광동 김영인 민혜병 박효일 서영수 서정현 양진호 최시환(이상 KT) 고충림 김현수 이강수 장민(이상 그룹사) ◇상무 △강이환 김몽룡 김영길 김윤남 김준만 김진기 노형래 명제훈 성제현 오인택 오택균 윤병후 이상기 이상규 이정우 이찬승 장두성 장병관 정선일 조현민 최우형 홍해전 황경희(이상 KT) 박성준(그룹사) ◇상무부 △고태국 박진민 권병형 김영관 김정식 김찬웅 김태영 김현진 김희진 나용재 박광원 박상원 박재형 박정현 박철민 배승식 송기석 송석규 신승우 신준화 안기정 오기환 유성상 윤대양 이진형 장도리 장봉수 전윤성 전종렬 정명호 정영철 정창수 정현수 정훈규 조의호 조정섭 한상봉 현기암 황대선 ◇Senior Meister △이석환 최지훈

◆넥센 ◇부사장 승진 △경영관리본부장 문성희 ◇상무이사 승진 △CMB사업부장 박성집 ◇이사 신규 선임 △청도넥센 생산담당 임용철

◆금호건설·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 [금호건설] ◇부회장 △박세창 ◇사장 대표이사 △조완석 ◇전무 △류기욱 서원식 이광상 정연준 ◇상무 △강희웅 이원준 전찬영 정세호 최선호 허연희 ◇상무대우 △김승주 [금호고속] ◇사장 대표이사 △이계영 [금호익스프레스] ◇전무 대표이사 △채형욱

◆신동아건설 △승진 ◇사장 △우수영 ◇전무 △건축총괄 유경원 ◇상무부B △개발사업2/정비 김종태 △분양 박종호 △건축영업 임홍식

◆대보그룹 △대보건설 △상무 최희열 이병복 이의문 △상무부 손익창 △대보실업 △상무 장상근 △대보정보통신 △전무 채승언 △상무 윤재욱 △대보그룹 △상무부 임윤식

◆대원제약 ◇부사장 승진 △관리본부 김연섭 ◇전무 승진 △ETC 마케팅부 장세민 △병원사업본부 조대균 ◇상무 승진 △전략기획실 함경훈 △OTC 사업부 이정희 △제제연구부 이아람 △제품개발부 김형선 △컨슈머헬스케어부 박영준 △헬스케어사업본부 백인영 ◇이사 승진 △CT 지원부 오준일 △마케팅2팀 정호진 △마케팅4팀 이진석

◆유니드 [유니드] ◇부회장 승진 △정의승 ◇사장 승진 △이우일 [유니드글로벌상사] ◇상무 승진 △곽현철

◆경희의료원 △행정처장 이현호

부음

▲손경준 씨 별세, 손세희(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대한한돈협회장) 씨 부친상 = 29일, 홍성의료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일 오전 7시 20분, 041-630-6244

▲한정윤 씨 별세, 민정주 씨 배우자상, 한연정·상균(퀴드자산운용 부사장)·승아(승실대학교 연구교수)·유정(엔엑스씨 실장) 씨 부친상, 방성원(고운세상부평피부과 원장)·장기철(뉴라클사이언스 상무) 씨 장인상, 강은주(경희대학교 응용화학 과 교수) 씨 시부상 = 3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02-3410-6912

문학의 쫓

이순원
소설가

아이들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아이가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고등학생이 내 아들이거나 내 딸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내 아이도 래의 아이들이 지나가는 구나, 지금 이 시간 저 아이는 왜 학교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을까, 살짝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내 아이 같은 느낌은 바로 들지 않는다. 그냥 아들 같은 학생으로 보이고, 딸 같은 젊은이로 보일 뿐 내 아이와 그 아이들이 하나로 겹쳐지지는 않는다.

그러다 아이가 군에 가면 거리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느낌이 달라진다. 중고등학교 때는 내 아이같이 보이지 않던 젊은들이 내 아이가 군인일 때는 이제 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키가 크거나 작거나, 혼자 있거나 무리지

도로 뒤따라가며 눈물짓는 엄마들도 있다. 그 눈물은 그냥 안 돼 보여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남의 귀한 집 자식들, 모두 무사하게 군 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염원의 기도와 같은 눈물이 아닐까.

부모의 눈에는 한없이 어린 저 군인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어머니 품에 안기듯 아침 저녁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 이렇게 한집안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나 아름답고 또 넉넉하며 귀한 모습이다. 내가 아직 소년이고 학생이었던 시절,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늘 강조했던 것이 바로 밥상에서 얼굴 보이기였다.

특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슬그머니 인사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길에서 군인을 보면 드는 생각

어 있거나 길에서 만나는 모든 군인이 내 아이처럼 보인다. 군복을 입은 그 군인을 내 아이가 걸어가는 모습처럼 오래도록 바라보게 된다.

그래도 나는 좀 달한 편이다. 아내는 길을 가다가 군인을 보면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껄떡없이 눈물을 짓는다. 저 아이들의 모습이 저토록 씩씩한데 왜 그러냐고 해도 한참 바라보다 말없이 눈가의 눈물을 찍어낸다. 아마 아내만 그런 게 아닐 것이다. 예전에 불렀던 군가대로, 사나이 한복숨바쳐 그 아이들이 이 땅을 지키고 우리의 단장을 지킨다면 그런 그 아들들의 안녕을 기도하고 지키는 것은 이 땅의 어머니들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아마 이 땅의 부모들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자리에 있는 자식이 더 애뜻하기 때문일 것이다. 운전을 할 때 한적한 외곽도로에서 사병들을 태우고 가는 트럭을 만나도 이 땅의 엄마들은 그 트럭을 함부로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 트럭을 오래 같은 속

집안 어른들이 여간 상심해하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 꼬박꼬박 인사를 받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행한 일이 바르지 못하고 뒤흔들지 못하면 집에 들어와 어른 얼굴 보기를 피한다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이따금 잔소리처럼 ‘출필곡 반필면(出必告 反必面)’을 듣는 아이 역시 어른이 되면 자기 아이들에게 아빠는 너처럼 그러지 않았다는 식으로 ‘출필곡 반필면’을 말할지 모른다. 어릴 때 내가 뒤흔들지 못했을 때는 그것이 잔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돌아보니 그것이야말로 가족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율로 가족 전체의 안전을 지켜나가게 한 가족 간의 관심이자, 그 관심의 힘이 아닌가 싶다.

바로 그렇게 아래로 베푸는 큰 사랑과 그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는 자식의 도리, 바로 이런 것이 서로를 아끼는 가족의 힘이며, 또 자녀들의 미래의 따뜻한 삶을 이끄는 바른 힘이 아닐까 여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우디 앨런 명언

“성공의 8할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미국의 영화감독. 자신이 각본한 ‘돈을 갖고 튀어라’ ‘사랑과 죽음’ 등의 코미디 영화를 만든 그는 ‘한나와 그자매들’ ‘마יתי 아프로디테’ 외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그의 작품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자신의 열등감 등을 중요한 코믹요소로 승화시켜 웃음 뒤에 페이소스를 느끼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35~.

☆ 고사성어 / 우익이성(羽翼已成)

새의 날개와 깃이 이미 자랐다는 말로 충분히 성숙해졌다는 뜻.

출전 사기(史記) 유후세가(留侯世家). 척부인(戚夫人)의 간언에 넘어간 황제가 태자를 폐하고 그녀의 아들 조왕(趙王) 유여의(劉如意)를 태자로 삼고자 했으나 대신들이 반대했다. 태자의 어머니 여후(呂后)는 유후(留侯)의 도움으로 황제가 존경하는 현자인 동원공(東園公)·하황공(夏黃公)·녹리 선생·기리계(綺里季)를 태자의 스승으로 모셨다.

연회에서 그 넷이 태자를 따르자 황제는 그들이 바로 자신이 가까이 하려 했으나 거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 여후에게 한 말. “짐이 태자를 바꾸려 했지만, 저 넷이 보좌해 태자의 날개와 깃이 이미 이루어졌으니[羽翼已成], 그 지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소.”

☆ 시사상식 / 오팔(OPAL) 세대
경제력을 갖춘 5060세대를 일컫는 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OPAL은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앞글자를 딴 조어. 베이비 부머인 58년생을 뜻하기도 한다. 이들 신 중년층은 은퇴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젊은이들처럼 소비한다. 또한, 자신을 가꾸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 시사상식 / 오팔(OPAL) 세대

경제력을 갖춘 5060세대를 일컫는 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OPAL은 ‘Old People with Active Life’의 앞글자를 딴 조어. 베이비 부머인 58년생을 뜻하기도 한다. 이들 신 중년층은 은퇴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젊은이들처럼 소비한다. 또한, 자신을 가꾸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슈&인물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펴낸 김 나 연 이노션 인사이트전략본부장

“고객 삶에 스며드는 마케팅 해야”

“이제 제품의 경쟁력을 알리고 선택을 유도하는 마케팅으로는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가는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서울 강남구 이노션 본사에서 만난 김나연 이노션 인사이트전략본부장은 최근 변화하는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브랜드가 생겨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통 미디어와 광고 콘텐츠에 집중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조언이다. 김 본부장은 차별적인 경험만이 브랜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회사인 이노션은 최근 내년의 트렌드를 조망하는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4’라는 책을 펴냈다. 이노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인사이트전략본부가 2021년부터 매년 연말에 내놓는 책이다. 광고회사가 매년 트렌드북을 내는 이유는 뭘까. 김 본부장은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한 이노션의 연구 결과를 세상과 공유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마케팅 키워드는 ‘경험’...

“팝업 방식도 변화해야”= 김 본부장은 내년 마케팅 트렌드로 ‘경험’을 꼽았다. 그동안 브랜드 마케팅은 고객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 선택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렇기에 많은 기업이 상품 자체의 매력을 돋보이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상품 간의 격차가 줄어들며 차별화가 쉽지 않아졌다.

게다가 소비자들을 광고에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도 줄고 있다. 많은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TV 광고 역시 예전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가 다양해졌지만 광고를 전달할 매개체가 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유튜브에 돈을 내고서라도 광고를 안 보겠다는 게 요즘의 소비자들이다.

김 본부장은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푸시(push)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소비자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 침투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험 마케팅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최근 많은 브랜드가 고객 경험 강화를 위해 쓰는 방법이 ‘팝업스토어’다. 오프라인 체험 공간을 통해 브랜드를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팝업스토어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팝업스토어가 기존 팬덤을 강화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더 많은 사람에게 브랜



김나연 이노션 인사이트전략본부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랜드마크타워에 있는 이노라이브러리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며 ‘친절한 트렌드 뒷담화 2024’를 소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드를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팝업스토어로 찾아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는 전략을 써야 한다”며 “고객들이 좋아하는 활동, 좋아하는 공간 안에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면 나와 교감이 되는 브랜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생성형 AI의 등장... ‘광고업계엔

위기가 아닐까’= 올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었다. 지난해 말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가 등장한 이후 올해 초부터 생성형 AI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생성형 AI를 통해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광고업계에서는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생성형 AI의 등장을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 그는 “생

나의 광고 수단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의 광고 대행사를 뛰어넘는

콘텐츠 만들 것’= 김 본부장은 단순히 광고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광고회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알고리즘을 연구해서 맞춤형 광고를 만든다고 해도 요즘 소비자들은 이를 피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며 “광고회사가 아무리 다가가도 소비자들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진다”고 말했다.

이노션은 최근 인사이트전략본부 내에 BX(Brand eXperience)랩이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는 조직이다. BX랩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에 집중한다. 광고업계에 딱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을 연구하는 관점을 바꾼 것이다.

김 본부장은 “BX랩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연구하고 인사이트를 찾아내 실행 부서들이 소비자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조직”이라며 “다른 회사에서 모두 하는 마케팅 방식을 따라가기보다는 앞장서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노션은 직접 콘텐츠 제작에도 나섰다. 올해 8월 콘텐츠 제작사 ‘이미지너스’와 손잡고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조인트벤처(JV) ‘스튜디오어빗’을 설립한 것이다. 이노션은 조인트벤처 설립을 계기로 광고 제작에 그치지 않고 예능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제작까지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본부장은 “광고 대행사를 뛰어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라며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찾고 이를 따라갔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문정 기자 kangmj@

이현령비현령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의 대다수 규정들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 개념을 전제로 한다. 가령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일을 사용자가 막는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라는 이름으로 처벌된다.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꽤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 개념은 적용 법률이 ‘근로기준법’인지 ‘노동조합법’ 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같은 법 내에서도 조항에 따라 사용자의 개념을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회사의 본부장·실장·파트장 등 상위 직급 관리자는 법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용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다. 한 공공기관의 ‘실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된 사례가 있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파트장’에게당신은노동조합가입대상이아니라고 말했다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개념 자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받고 나아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억울하다는 주장이 늘 있어 왔다. 사용자도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설명회에서 노동조합의 파업 방침을 비판하는 등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는 이후에도 하급심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가 반드시 관철되고 있지는 않은

논현로

구 자형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것 같다. 대표이사가 파트장에게 당신은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사건에서, 파트장과 노동조합은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막음으로써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대표이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을 뿐 불이익을 줄 의사가 없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대표이사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되지 왜 파트장한테 직접 말을 합니까?”라고 질문했고, 결국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했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원조인 미국 법 입장은 명확하다. 미국

은 1947년 노동관계법을 개정해 보복·폭력의 위협 또는 이익의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 사용자의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조문은 표현의 자유를 특히 중시하는 미국 정서에 따른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선진국 어디를 보더라도 부당한 압력을 동반하지 않은 발언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경우 역시 매우 드문데, 오래 전 일본이 이러한 입장이었으나 이미 1949년 처벌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 자체에 대한 터부가 많다. 단순히 발언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말을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의아하게 보인다.

사용자·근로자 구분 안될때 많지만
“노조 가입대상 아니다” 말만 해도
부당행위 처벌...사용자에게 가혹해

서민금융, 누구를 위한 상생인가

상생금융 실천방안을 놓고 정부와 금융권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지난 29일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상생금융 지원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지난 3월 주요 금융지주는 상생안을 내놔다. 사별로 1000억~2000억 원 규모였다. 당시 ‘이자 장사’ ‘돈 잔치’가 발미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번에도 데자뷰다. 명분은 ‘손 쉽게’ 이자로 ‘지나치게’ 많이 벌었다는 것이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더욱 높았다. 소상공인이 은행들 종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으니 말이다. 당국까지 융단폭격에 나서자 또다시 납작 엎드려야 했다.

‘시즌 2’ 핵심은 ‘얼마나 내놓느냐’가 됐다. 일부 은행의 상생안이 ‘까인’ 데다 정치권이 일명 ‘횡재세’까지 발의하며 압박하고 있어서다. ‘확인 사실’을 위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지주회장단과 업권별 최고경영자(CEO)를 만났거나 소집할 예정이다. 은행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어느 정도 수궁이 간다. 소상공인과 서민 생활은 ‘바닥’이니 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이치에 맞춰 돈을 번 게 잘못이냐는 질문에는 반박할 수 없다.

‘팔 비틀기’든 ‘관치’든 정부의 취지는 선의라고 치자. 하지만 의아한 점이 하나 있다. 상생금

노트북 너머

정상 원
금융부 기자



융지원 대상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은행권의 2조 원 규모 상생금융 지원 우선 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다. 저신용자, 취약자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8월 기준 매달 3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내준 곳은 15곳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곳 줄었다.

전업 카드사들은 카드 한도를 내렸다. 업황이 어려운 만큼 연체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서민금융 창구인 2금융권은 대출문을 줬다. 저신용자나 서민들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자율적인 사회공헌’을 언급했다. 관치 논란 속 ‘자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서민들을 위한 정교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때다. jsw@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국세청이 어제 불법 사채업자 10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살인적 고금리, 악질 추심 등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의 탈루 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했다.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5000% 넘는 이자율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었다.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고 인신매매 위협을 가했다.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추심 사례도 있다.

사기 행각도 난무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을 증개한 뒤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저신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업자도 있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 9개 부처와 기관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중이다. 특별단속기간도 연장했다. 그러나 올해 1~9월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 건수는 10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구속 인원은 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배 늘었다. 되레 독버섯이 번지고 있다.

단속과 처벌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무관용 원칙도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제 발로 불법 사채업체를 찾는 환경적 모순은 내버려둔 채로 ‘특

별단속’으로만 대응하는 것은 무모하다. 왜 서민 금융의 질서가 무너진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 2021년부터 최고 20%로 묶인 법정금리 한도 조정을 배제한 접근법은 백악이 무효라는 점부터 인정할 일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면 2018년과 2021년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두 번 내렸다. 선의의 정책이다. 하지만 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대부업체는 2금융권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들은 통상 대손비(8~10%), 광고·운영비(5~7%)에 조달금리(8~9%)를 더해 금리를 정한다. 2~3년 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내 주요 업체가 속속 문을 닫거나 서민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진 것은 민생 파탄을 의미한다. 서민이 사채 범죄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제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독일, 프랑스 등은 시장 상황을 반영해 법정최고금리 상한을 조정한다. 저금리는 서구에서도 대환영이다. 하지만 시장 원리에 반하는 무리수는 필연적으로 역풍을 부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유연성을 중시하는 금리 정책을 펴는 것이다. “법정최고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지 않는다면 취약가구의 2금융권 대출시장 배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악덕 업자 세금 추징은 이 문제의 정답이 아니다.

글로벌 서민

‘문화인류학 토크 콘서트’

“한식 경연대회에 심사위원이 돼주시겠어요?” 한국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대사관은 2021년부터 해마다 한식 홍보를 위해 포르투갈관광청과 공동으로 한식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지난달 22일 이곳 코임브라 시내의 코임브라호텔관광학교에서 열렸다<사진>. 행사 지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가자들의 요리를 평가해 달라는 것.

올해는 전국 각지의 호텔관광학교 학생 11개 팀이 2인1조로 참가해 솜씨를 뽐냈다. 경연 주제도 ‘한국의 전통반상’으로 지난해에 비해 제법 난도가 있었다. 좀처럼 접하기 힘든 한식을 조리하는 외국 청년들의 진지한 모습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그려졌다. 올해 우승은 불고기와 된장찌개, 김치전, 숙주나물 등을 정갈하게 차려낸 포르탈레그르(Portalegre) 호텔관광학교팀에 돌아갔다. 우승자를 발표하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을 보니 나도 함께 뭉클해졌다. 이번 경연을 계기로 저들은 ‘한식 전도사’가 될 것이고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이 그 주변으로 널리 퍼지리라. 한식 세계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사임에 틀림없다.

내가 포르투갈에 올 때만 해도 이 나라에 한식당은 손에 꼽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제법 많아졌다. 심지어



중국인과 조선족동포들까지 한국음식점 창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만큼 한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긴데, 아무래도 K팝과 드라마의 영향이 크다. 우리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한국 드라마에 음식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무슨 맛

인지 궁금했다”며 김치를 맛보고 소주도 마셔본다. 소주는 왜 두 손으로 받고 고개를 돌려 마시는지, 소주와 맥주를 왜 섞어 마시는지, 찻가락은 어떻게 쓰는지 손님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궁금증들을 한 보따리 풀어놓으면 나는 하나씩 설명해주고 시연해준다. 또 내가 포르투갈 음식과 문화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면 손님들은 검색을 통해 사진까지 보여 주며 신나게 알려준다.

이렇게 음식으로 시작해 스포츠로 대중문화로 사회 생활로 역사로 대화는 이어지고 비빔밥처럼 재료가 어우러진 ‘문화인류학 토크 콘서트’ 한 상이 차려진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또 만나요’ 한국말 한마디 배우는 시간으로 마무리되곤 한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해외에서 한국음식을 판다는 건 단순히 밥 한 공기, 김치 한 접시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국의 문화, 한국인의 정서를 맛보이는 자리인 게다. 코임브라(포르투갈)=장영환 통신원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만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당신은 하늘을 보세요
저는 공기를 볼게요

집 안팎 공기를 10분마다 학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맞춤청정 AI+**



* 맞춤청정 AI+ 학습된 실내외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이 꺼져 있을 때에도 10분마다 제품 내 센서 동작 및 공기질을 예측하여 미리 ON 동작. 실외 공기질은 지역별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표준협회 주관 AI+ 인증 취득 - 맞춤청정 AI+ 기술에 대한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증 취득(관련 국제 표준: ISO/IEC 25023:2016) * 맞춤청정 AI+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SmartThings에서 '인공지능 청정'으로 셋팅 필요
* SmartThing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인증,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BESPOKE 큐브™ Air

가전을 나답게.